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9 심화분석보고서

책임연구원 강지영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9 심화분석보고서

: 청소년의 폭력피해 및 인권존중 경험
유형 및 특성 연구

책임연구원_ 강지영(숙명여자대학교·교수)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폭력피해 및 인권존중 경험의 잠재유형을 발견하고 그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보호자의 체벌, 언어폭력, 방임, 학교 선생님의 체벌과 언어폭력, 학교 친구나 선후배의 구타 및 언어폭력과 따돌림, 사이버 상의 원치 않는 사생활 공개 및 언어폭력, 성폭력(성희롱과 성추행)의 11개 폭력유형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폭력피해 잠재유형을 분류하였다. 자기인권평가는 청소년들이 가정, 학교, 사회, 사이버 상의 4가지 환경에서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는 정도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자기인권평가 잠재유형을 발견하였다. 둘째, 분류한 폭력피해 및 자기인권평가 잠재유형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자아존중감, 우울, 자살생각)과 관련하여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셋째, 각 잠재유형의 예측변인을 밝히고자 하였으며, 성별, 학년, 주관적 건강상태, 성적, 가정형편, 가정과 학교에서의 존중정도, 지역사회 안전도를 독립변인으로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폭력피해 및 자기인권평가의 잠재유형이 청소년의 차별가해 행동 및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잠재유형을 독립변인으로, 성별, 학년, 자아존중감, 차별피해경험, 가정, 학교에서의 폭력경험 및 존중경험, 지역사회 안전도 등을 통제변인으로 활용하였다.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9년 조사에 참여한 중고등학생 6,409명의 설문응답을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고, 기술통계, 집단 간 평균 및 빈도 비교 및 회귀분석, 잠재집단 및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폭력피해 경험은 무피해 집단, 가정 내 피해 집단, 교사피해 집단, 다중피해 집단의 4개 잠재유형으로 분류되었고, 자기인권평가는 높은 자기인권평가 집단과 낮은 자기인권평가 집단의 2개의 잠재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둘째, 다중피해 집단은 우울감 및 자살생각 빈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는 가정 내 피해 집단, 교사피해 집단, 그리고 무피해 집단의 순서로 우울과 자살생각 빈도가 높았다. 높은 자기인권평가 집단은 낮은 자기인권평가 집단에 비해 우울, 자아존중감, 자살생각에서 모두 양호한 특성을 보여주었다. 셋째, 폭력피해 잠재유형별 예측변인을 살펴본 결과, 무피해 집단에 비해서 여학생인 경우 가정 내 피해 집단에, 남학생인 경우 교사피해 집단에 소속될 가능성이 높았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리고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다중피해 집단에 소속될 가능성은 크게 감소하였다. 가정 내 피해, 교사피해, 다중피해 집단 모두에 대해 가정에서의 존중 정도, 학교에서의 참여 및 존중 정도가 증가할수록 각 폭력피해 집단에 소속될 가능성은 낮아졌다. 또한 지역사회의 안전도가 높을수록 폭력피해 가능성 역시 줄어들었다. 높은 자기인권평가의 예측변인 가운데 그 영향력이 가장 큰 것은 가정 내에서 부모에게 의견을 존중받는 것과 부모로부터의 폭력을 경험하는 것이었다. 학교에서 존중받고 참여하는 것 역시 청소년이 높은 자기인권평가 집단에 소속되는데 영향을 미쳤다. 지역사회의 안전도가 높을수록, 학업성적이나 가정형편이 좋을수록 높은 자기인권평가 집단에 소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넷째, 폭력피해의 잠재유형이 차별가해 행동 및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을 때, 다중피해 집단에 소속된 경우 다른 폭력피해 잠재유형에 소속된 것에 비해 차별가해 행동을 큰 폭으로 증가시켰다. 폭력피해 잠재유형 가운데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친 것은 가정 내 폭력피해 집단뿐이었고 무피해 집단에 비해 가정 내 폭력 피해 집단에 소속된 경우 인권의식이 오히려 조금 더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다섯째, 자기인권평가 잠재유형은 차별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자기인권평가 잠재유형 가운데 높은 자기인권
평가 집단에 속한 것은 인권의식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폭력피해 경험을 줄이고,
인권존중 경험을 증가시킬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다중폭력피해 청소년들
에 대한 개입전략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폭력피해 경험, 인권존중 경험, 잠재유형, 예측변인,
차별가해 행동, 인권의식

연구요약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폭력피해의 잠재유형과 인권존중 정도인 자기인권평가의 잠재유형과 그 특성을 살펴보고자 함.
- 이를 위해 각 잠재유형 분류 후, 잠재유형별 정신건강 특성(자아존중감, 우울, 자살생각), 잠재유형의 예측변인 및 잠재유형이 청소년의 차별가해 행동과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

2. 연구방법

- 폭력피해 유형, 자기인권평가, 차별가해 행동, 인권의식 등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함.
- 한국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 참여한 중고등학생 6,409명을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함.
- 잠재집단분석 및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해 폭력피해 잠재유형 4개와 자기인권평가 잠재유형 2개를 발견함.
- 폭력피해 잠재유형 4개의 정신건강 특성(자아존중감, 우울, 자살생각)을 비교하고 자기인권평가 잠재유형(자아존중감, 우울, 자살생각) 2개의 정신건강 특성을 비교함.
- 폭력피해 잠재유형의 예측변인을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기준집단을 무피해 집단으로 하여 가정 내 피해집단, 교사피해 집단, 다중피해 집단의 예측변인을 살펴봄. 예측변인에는 성별, 학년, 학업성적, 주관적

건강상태, 가족구조, 가정형편, 가정 내 자녀존중 정도, 학교 내 학생존중 정도, 지역사회 안전도가 포함됨.

- 인권자기평가 잠재유형의 예측변인을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기준집단을 낮은 자기인권평가 집단으로 하여 높은 자기인권평가 집단의 예측변인을 살펴봄. 예측변인에는 성별, 학년, 학업성적, 차별피해경험, 가족구조, 가정형편, 가정 내 폭력 정도, 또래 폭력 정도, 사이버 폭력정도, 가정 내 자녀존중 정도, 학교 내 학생존중 정도, 지역사회 안전도가 포함됨.
- 회귀분석을 통해 폭력피해 잠재유형이 차별가해 행동 및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고 함께 투입한 변인은 성별, 학년, 학업성적, 차별피해 경험, 인권교육 도움 정도, 자아존중감, 가족구조, 가정형편, 가정 내 자녀존중 정도, 학교 내 학생존중 정도, 지역사회 안전도임.
- 회귀분석을 통해 자기인권평가 잠재유형이 차별가해 행동 및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고 함께 투입한 변인은 성별, 학년, 학업성적, 차별피해 경험, 인권교육 도움 정도, 자아존중감, 가족구조, 가정형편, 가정 내 폭력 정도, 가정 내 방임 정도, 교사 폭력 정도, 또래 폭력 정도, 사이버 폭력 정도, 지역사회 안전도임.

3. 주요결과

1) 잠재유형 분류

- 폭력피해 잠재유형은 무피해 집단, 가정 내 피해 집단, 교사피해 집단, 다중피해 집단으로 분류됨.
- 자기인권평가 잠재유형은 높은 자기인권평가 집단, 낮은 자기인권평가 집단으로 분류됨.

2) 잠재유형별 정신건강

- 다중피해 집단은 우울감에서 나머지 집단에 비해 유의한 수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으며, 자살생각의 빈도도 가장 빈번하였음. 나머지 집단에서는 가정 내 피해 집단, 교사피해 집단, 그리고 무피해 집단의 순서로 우울과 자살생각 빈도가 높았음.
- 높은 자기인권평가 집단은 낮은 자기인권평가 집단에 비해 우울, 자살생각, 자아존중감에서 모두 양호한 특성을 보임.

3) 잠재유형의 예측변인

- 여학생인 경우 가정 내 피해 집단에, 남학생인 경우 교사피해 집단에 소속될 가능성이 높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다중피해 집단에 소속될 가능성은 감소함.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다중피해 집단에 소속될 가능성이 크게 감소함. 가정에서의 존중 정도, 학교에서의 참여 및 존중 정도가 증가할수록 각 폭력피해 집단에 소속될 가능성은 낮아짐. 지역사회 안전도가 높을수록 폭력피해 가능성 역시 줄어들음.
- 가정 내에서 부모에게 의견을 존중받는 것과 부모로부터의 폭력을 경험하는 것, 학교에서 존중받고 참여하는 것 역시 청소년이 높은 자기인권평가의 예측변인으로 드러남. 지역사회 안전도가 높을수록, 학업성적이나 가정형편이 좋을수록 높은 자기인권평가 집단에 소속할 가능성이 높았음.

4) 폭력피해 및 자기인권평가 잠재유형의 영향

- 다중피해 집단에 소속된 경우, 다른 폭력피해 잠재유형에 소속된 것에 비해 차별가해 행동을 큰 폭으로 증가시킴. 자기인권평가 잠재유형은 차별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함께 모델에 투입된 가정 내 폭력 정도나 학교 폭력 정도, 사이버 폭력 정도 등이 차별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인권의식에는 폭력피해와 같은 부정적 인권경험 보다는 인권존중이나 인권교육의 도움정도와 같은 긍정적인 인권경험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자기인권평가 잠재유형 가운데 높은 자기인권평가 집단에 속한 것은 인권의식의 증가에 영향을 미침.

4. 정책제언

- 전체 청소년의 37.5%가 한 가지 이상의 폭력 잠재유형을 경험하며 7.7%에 이르는 청소년이 다중피해 잠재유형에 속하여 가정, 학교, 사회에서 청소년의 폭력피해를 줄이기 위한 인식개선 및 대안적 훈육방식 활용 등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함.
- 다중폭력 피해 청소년은 자살생각과 우울에서 가장 부정적인 특성을 보여 이들에 대한 조기발견 및 효과적인 개입과 치료가 필요함이 드러남. 가정 내 폭력피해 및 교사폭력 피해 집단 역시 적절한 개입과 치료가 필요한 정신건강 특성을 나타냄.
-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다중피해 집단에 속할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밝혀져 건강이 취약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중폭력피해 예방을 위한 전략이 개발될 필요가 있음.
- 가정과 학교에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참여를 높이는 것은 폭력피해 잠재유형에 소속될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자기인권평가를 높이는 것으로 드러나 일상적인 생활지도 및 훈육에서 인권존중 실천전략과 인권친화적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이 지역사회가 범죄나 사고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식할수록 청소년이 폭력피해 잠재유형에 소속될 가능성이 낮아졌고 청소년의 자기인권평가도 높아져 청소년의 인권증진을 위해 지역사회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이 드러남.
- 부정적인 인권경험인 폭력피해는 부정적 인권행동인 차별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긍정적인 인권경험인 높은 자기인권평가는 긍정적 인권행동인 인권 의식을 증진하는 것으로 드러나 인권행동 특성에 따라 예방 전략에 차별성을 두어야 함이 드러남.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9
심화분석보고서
: 청소년의 폭력피해 및 인권존중
경험 유형 및 특성 연구

연구보고 19-R12-1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문제	6
II. 이론적 배경	7
1. 폭력피해 유형과 정신건강	9
2. 폭력피해 유형의 예측변인	12
3. 청소년의 자기인권평가의 개념 및 예측변인	14
4. 청소년의 차별가해 행동	15
5. 청소년의 인권의식	17

III. 연구방법	19
1. 연구대상	21
2. 연구변인	21
3. 분석 방법	28
IV. 연구결과	29
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31
2. 잠재유형 분류	32
3. 잠재유형별 정신건강	37
4. 잠재유형의 예측변인	38
5. 폭력피해 및 자기인권평가 잠재유형의 영향	42
V. 결론 및 논의	47
1. 결론 및 논의	49
2. 실천적 제언	56
3. 연구의 한계점	61
참고문헌	63
Abstract	71

표 목차

표 Ⅲ-1. 잠재유형의 예측모형에서 고려한 변인들	24
표 Ⅲ-2. 잠재유형의 영향 분석에서 투입된 변인들	27
표 Ⅳ-1. 연구참여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31
표 Ⅳ-2. 폭력피해 잠재유형 수에 따른 모델 적합도 지수	33
표 Ⅳ-3. 잠재유형별 조건항목확률	35
표 Ⅳ-4. 자기인권평가 잠재유형 수에 따른 모델 적합도 지수	35
표 Ⅳ-5. 자기인권평가 잠재유형별 인권존중 정도(평균)	36
표 Ⅳ-6. 폭력피해 잠재유형별 정신건강 특성	37
표 Ⅳ-7. 자기인권평가 잠재유형별 정신건강 특성	38
표 Ⅳ-8. 폭력피해 잠재유형의 예측변인	39
표 Ⅳ-9. 자기인권평가 잠재유형의 예측변인	40
표 Ⅳ-10. 폭력피해 잠재유형이 차별가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	42
표 Ⅳ-11. 자기인권평가가 차별가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	44
표 Ⅳ-12. 폭력피해 잠재유형이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	45
표 Ⅳ-13. 자기인권평가가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	46

그림 목차

그림 IV-1. 잠재유형별 조건항목확률 (conditional item probability)	34
그림 IV-2. 자기인권평가 잠재유형별 조건항목확률 (conditional item probability)	36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연구문제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89년 아동권리협약이 유엔총회에서 채택되고 1991년 우리나라가 이에 비준한 이후, 협약의 이행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와 점검, 법적, 제도적 개선을 통해 우리나라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주체들의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 협약 비준 이후 근 30년이 지난 현 시점은 법적, 제도적 개선 뿐 아니라 하루하루의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권리가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할 때이다(이재연 외, 2018).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들은 모든 종류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UNCRC, 1996). 협약 비준 이후 지금까지 우리사회에서 학교에서의 체벌금지 및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등이 이루어졌고, 아동·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왔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여전히 다양한 폭력피해에 노출되고 있고 인권침해를 경험하고 있다. 가정에서의 학대와 방임, 학교에서의 체벌, 그리고 또래 집단 및 사이버 공간에서 폭력 등이 그 예이다(김재엽, 황성결, 2017;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8; 이승현, 강지현, 이원상, 2015; 통계개발원, 2016).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인권침해와 인권존중 경험을 이해하고자 청소년들의 폭력피해 및 스스로의 인권이 존중받는 정도를 평가하는 자기인권평가를 유형화하고 그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청소년들의 인권침해 경험을 감소시키고 인권존중 경험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에 대한 가정에서의 학대와 학교에서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신체적, 언어적인 폭력은 꾸준히 보고되고 있고(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8; 통계개발원, 2016), 학교에서의 또래 간 괴롭힘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사회문제이다(통계개발원, 2016). 또한 온라인에서의 댓글, SNS를 통한 언어적 폭력 및 사생활 침해 등도 새롭게 등장한 폭력 유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통계개발원, 2016) 청소년이 성폭력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김재엽, 황성결, 2017). 다양한 종류의 폭력은 공통적으로 피해자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관계와 적응에도 지장을 초래한다. 특히, 한 가지 종류의 폭력의 피해자들은 또 다른 종류의 폭력피해에 취약하여 폭력을 중복으로 경험하기도 한다(Finkelhor et al., 2007). 우리나라 청소년들 역시 양육자와 또래로부터의 폭력 외에 교사에 의한 폭력, 사이버 상에서 익명의 타인에 의한 폭력, 성폭력 등을 다중으로 경험할 수 있으나, 선행연구들은 3개 이상의 폭력을 동시에 경험하는 폭력피해의 양상에 대해 살펴보기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님(보호자)의 체벌, 언어폭력, 방임, 학교 선생님의 체벌과 언어폭력, 학교 친구나 선후배의 구타 및 언어폭력과 따돌림, 사이버 상의 원치 않는 사생활 공개 및 언어폭력 및 성폭력(성희롱과 성추행)의 11개 폭력유형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폭력피해 양상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였다. 잠재집단분석을 통해 청소년들이 어떠한 폭력을 동시에 중복하여 경험하는지 그 유형을 파악하고자 하며, 이는 폭력피해 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폭력의 예방과 대처에 기여하는 자료의 근거가 될 것이다. 인권존중 경험과 관련하여서는 청소년들이 가정, 학교와 같은 환경 및, 사회 혹은 사이버 상과 같은 여러 환경에서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는 정도인 자기인권평가에(김영미, 2016) 대해 어떤 경험을 하는지 이해하고자 하였다. 폭력피해가 여러 대상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권존중 경험 역시, 하나의 영역만이 아니라

여러 개의 각기 다른 영역들이 연계되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들의 자기인권 평가 잠재유형을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해 발견하고자 하였다.

폭력피해 및 자기인권평가의 잠재유형을 분류한 후에는 분류한 각 잠재유형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자아존중감, 우울, 자살생각)과 관련하여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각 잠재유형의 예측변인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폭력피해 및 자기인권평가의 잠재유형이 청소년의 차별가해 행동 및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차별가해 행동과 인권의식에 영향을 주는 폭력피해 및 자기인권평가 유형이 무엇인지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폭력피해 및 자기인권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의 폭력피해를 감소시키고, 인권존중 경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2. 연구문제

- 1) 청소년이 경험하는 인권경험의 잠재유형은 무엇인가?
 - 1.1. 청소년이 경험하는 폭력피해의 잠재유형은 무엇인가?
 - 1.2. 청소년이 판단한 자기인권평가의 잠재유형은 무엇인가?
- 2) 인권경험 잠재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정신건강(우울, 자아존중감, 자살생각)은 어떠한가?
 - 2.1. 폭력피해의 잠재유형에 따른 정신건강은 어떠한가?
 - 2.2. 자기인권평가의 잠재유형에 따른 정신건강은 어떠한가?
- 3) 인권경험 잠재유형의 예측변인은 무엇인가?
 - 3.1. 폭력피해 잠재유형의 예측변인은 무엇인가?
 - 3.2. 자기인권평가 잠재유형의 예측변인은 무엇인가?
- 4) 청소년의 인권경험의 잠재유형은 차별가해 행동과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가?
 - 4.1. 폭력피해 잠재유형은 차별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 4.2. 폭력피해 잠재유형은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가?
 - 4.3. 자기인권평가 잠재유형은 차별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 4.4. 자기인권평가 잠재유형은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가?

○ — 제2장 이론적 배경

- 1. 폭력피해 유형과 정신건강
- 2. 폭력피해 유형의 예측변인
- 3. 청소년의 자기인권평가의
개념 및 예측변인
- 4. 청소년의 차별가해 행동
- 5. 청소년의 인권의식

1. 폭력피해 유형과 정신건강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다양한 상황에서의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우리나라 아동 학대사례 가운데 약 40%가 13세 이상의 청소년이고(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8), 중고등학생들의 20-25%가 학교에서 교사의 체벌 및 언어폭력을 경험하고 있으며, 또래로부터는 약 2%가 신체적 폭력을, 15%이상이 언어폭력을 경험한다(통계개발원, 2016). 사이버 상에서 욕을 듣거나, 나쁜 소문이 나는 것을 경험한 비율은 각각 36.6%, 20.3%에 이르며(이승현, 강지현, 이원상, 2015) 여자 청소년들 가운데 성폭력을 경험한 중고등학생의 비율은 16%에 달한다(김재엽, 황성결, 2017).

아동학대를 비롯한 다양한 폭력은 청소년들에게 여러 가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양육자에 의한 학대는 불안, 우울, 위축, 공격성, 문제행동, 비행과 같은 여러 가지 내재화, 외현화 문제를 증가시키고(윤혜미, 2017), 교사의 체벌은 불안감과 공격성을 높이며, 학교적응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도기봉, 장승옥, 2014). 학교폭력 및 사이버 폭력은 우울불안, 위축, 공격성, 자살 행동(김재엽, 최윤희, 장대연, 2019; 김현숙, 2013; Smokowski & Kpasz, 2005)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성폭력 경험은 자살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김재엽, 황성결, 2017).

특히 최근에는 한 개인이 각기 다른 상황에서 다른 가해자에 의한 폭력을 동시에 경험하게 되는 중복폭력(multiple forms of violence)피해에 대한 연구가 축적

되어 왔다. 즉, 현실에서는 한 개인이 한 가지 폭력을 경험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폭력의 피해를 동시에 경험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러한 중복폭력이 주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였다. 선행연구들은 청소년이 경험하는 중복 폭력 피해를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부모로부터의 학대와 학교에서의 또래에 의한 폭력의 중복 피해(김재엽, 이현, 장건호, 2016a; 김재엽, 김준범, 장용언, 한기주, 2016b; 윤명숙, 조혜정, 2008; 이인선, 최지현, 2014),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목격(김재엽, 송아영, 한샘, 2010; 최진영, 김기현, 2019), 온라인 학교폭력과 오프라인 학교폭력(박현주, 2019) 등의 특성과 영향을 연구하였다. 개별 연구에 따라 구체적인 폭력의 정의 및 대상이 상이하여, 일관된 비교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청소년들 가운데 아동학대와 학교폭력을 동시에 경험하는 비율은 적게는 4.5%(이인선, 최지현, 2014)에서 많게는 24%(김재엽 외, 2016a)에 이르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학교폭력을 경험하는 비율은 5.8%(김재엽 외, 2019)에서 7.3%(박현주, 2019)로 나타났다. 2개 이상의 폭력을 동시에 경험하는 경우,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단독 폭력의 경우보다 더욱 부정적임을 밝히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울 및 불안(김준범, 최윤희, 2018; 윤명숙, 조혜정, 2008; 이인선, 최지현, 2014; 최진영, 김기현, 2019), 공격성 및 자살생각(김재엽 외, 2016b; 김준범, 최윤희, 2018), 학교폭력 가해(김재엽 외, 2016a)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증가시켰고, 삶의 만족도는 감소하였다(이인선, 최지현, 2014)고 보고하고 있다. 즉, 선행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단일폭력보다 중복폭력의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Finkelhor 외(2007)는 여러 명의 다른 가해자로부터의 폭력을 동시에 경험할 때 이를 다중폭력피해(poly-victimization)라 정의하며, 이러한 경험이 아동 및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Finkelhor et al., 2007; Finkelhor, Ormrod, Turner, & Holt, 2009). 연구자에 따라 2가지 이상부터 5가지나 그 이상의 폭력피해 경험을 다중폭력피해라고 하였는데(Davis

et al., 2018; Ford, Elhai, Connor, & Frueh, 2010; Jackson-Hollis, Joseph, & Browne, 2017). 여기에는 아동학대와 방임, 신체적 폭력, 성폭력, 괴롭힘과 같은 직접적인 피해 경험 뿐 아니라 물리적 폭력의 목적과 같은 간접적인 피해 경험도 포함될 수 있다. 공통적으로 국외의 연구들도 국내의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아동, 청소년이 경험하는 중복폭력, 혹은 다중폭력 피해가 단일 유형 폭력에 비해 불안, 우울, 분노/공격성, 폭음, 비행, 약물남용, 외상 후 스트레스(Davis et al., 2018; Finkelhor et al., 2007; Ford, Elhai, Connor, & Frueh, 2010; Jackson-Hollis, Joseph, & Browne, 2017) 등의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행동과 특성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밝혀왔다.

반면에 국내의 연구들 가운데는 3가지 이상의 폭력피해를 살펴본 연구는 다소 제한적으로 지금까지 가정 내 양육자로부터, 학교에서 교사와 또래로부터, 지역사회 및 이웃에서의 성학대, 협박을 포함한 폭력을 살펴본 김준범과 최윤희(2018)의 연구에 불과하다. 부모, 교사, 또래로부터의 폭력을 함께 살펴보거나(김영미, 2016), 부모, 또래, 사이버상의 폭력을 살펴본 연구들이 있지만(김희진, 2017) 전체 폭력피해 경험을 잠재변인으로 형성하여 그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각 폭력의 중복 혹은 단독발생에 따른 영향을 구분하지 않았다.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가정 및 학교에 제한된 경향이 있으며, 성폭력을 살펴본 경우는 김준범과 최윤희(2018)의 연구에 불과하고 사이버 상의 폭력을 따로 구분하여 발생빈도 및 중복 형태를 살펴본 경우도 다소 제한된다(김재엽 외, 2019; 박현주, 2018).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보다 다양한 폭력의 유형을 가지고 잠재집단분석을 실시하여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폭력피해의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2개 이상의 유형이 중복되는 경우에 치중되어 있고 5개 이상의 폭력경험까지 살펴본 김준범과 최윤희의 연구에서도 5개 이상과 1-4 개의 폭력경험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보아, 여러 개의 폭력 유형 중, 어떤 유형들을 청소년이 동시에 경험하는지 그 유형을 이해할 수는 없었다.

잠재집단분석을 통해 폭력경험의 유형을 발견한다면, 개별청소년들이 동시에 경험하는 폭력의 개수 많이 아니라 어떤 폭력을 중복해서 경험하는지 피해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 유형별 정신건강 특성을 살펴보아 폭력피해 청소년에 대한 개입전략을 마련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폭력피해의 유형을 살펴본 연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 더 나아가 예방 전략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폭력은 가정 내 양육자로부터의 신체적, 언어적 폭력, 방임과 학교 교사로부터의 신체적, 언어적 폭력, 학교에서 또래로부터의 신체적, 언어적 폭력 및 따돌림, 사이버 상에서 경험하는 언어적 폭력 및 원치 않는 사생활 폭로, 그리고 성적 폭력(성희롱 및 성추행)을 포함한다.

2. 폭력피해 유형의 예측변인

Finkelhor 외(2009)는 중복폭력 피해 혹은 다중폭력피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가능한 설명을 제시하였다. 먼저, 아동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특성 가운데 공격적이거나 방해를 잘하고, 감정통제가 어렵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 등은 보다 쉽게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게 한다(Finkelhor et al., 2009; Hodges & Perry, 1999). 또한 가족 안에서 경험한 폭력으로 인해 아동이 심리적인 부적응 문제를 가지게 되면, 적절한 사회적 관계나 문제해결 능력 등이 훼손되고 이에 따라 가정 밖에서도 또래에게 소외되거나 폭력의 희생양이 되기 쉽다(Mohr, 2006; Finkelhor et al., 2009). 가족이 아동을 적절히 보호하거나 감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알코올, 가정폭력 등)를 가지고 있으며, 가족 내의 혼란과 역기능으로 인해 양육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못할 때에도 아동이 가정 외부에서 폭력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 아동이나 청소년이 위험한 지역사회에서 성장

하면 폭력이 난무하며, 사회적 유대가 약한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정 외에서 폭력에 노출되기 쉽고,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는 가족들도 스트레스가 높아져 아동 양육에서도 좀 더 통제적이며 강압적인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다. 학교에서도 비슷하게 지역사회의 폭력 및 가정에서의 폭력에 노출된 아동들 간에 폭력적인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Finkelhor et al., 2009).

중복피해경험의 원인을 학습된 무기력(learned helplessness)으로 설명할 수도 있는데,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폭력 혹은 혐오상황을 한 번 경험하고 나면, 스스로가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학습하게 되어 그 후에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 그에 대해 무감각해지거나 상황을 회피하고자 하는 동기가 결여되고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적절한 대처 행동을 하지 않게 될 수 있다(김준범, 최윤희, 2018; Maier & Seligman, 1976). 폭력적인 상황만이 아니라, 부모가 일상적으로 자녀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감정을 제한하는 심리적 통제를 가할 경우 자녀의 학습된 무기력이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기도 한다(황은주, 윤선아, 2017). 반대로 일반적으로 학습된 무기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개인이 자신의 행동이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험을 하여, 자신의 통제력에 대한 믿음에 따라 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존재한다(이명진, 봉미미, 2013). 이러한 주장이 반드시 폭력상황에 적용하여 검증된 것은 아니지만, 폭력피해 상황에 적용하자면 평소에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청소년이 자신의 의견이나 행동을 통해 상황을 통제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험을 하면, 폭력피해와 같은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보다 적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대처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예측변인에 포함시켜 살펴보고자 하는데 가족 내에서 혹은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청소년이 본인의 의견이나 행동을 존중받고 이를 통해 상황을 통제하는 경험을 한다면 폭력피해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상황을 회피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폭력피해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지 검증해 보고자 한다.

2016년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에 따르면 남학생들이 여학생들 보다 학교폭력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더 빈번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지, 유설희, 이민희, 김진호, 2016). 교사의 체벌 및 언어폭력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였다(통계개발원, 2016). 또한 청소년이 건강이나 학업 등에서 취약한 경우 보다 쉽게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김선아, 2007; 이민식, 김람희, 2013). 가족특성과 관련하여 한부모 가족인 경우, 부모가 약물남용문제나 심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재혼가정인 경우(Berger, 2004; Turner, Finkelhor, & Ormrod, 2007; Ondersma, Delaney-Black, Covington, Nordstrom, & Sokol, 2006), 다중폭력피해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결과도 존재한다.

3. 청소년의 자기인권평가의 개념 및 예측변인

청소년이 자신의 인권이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 얼마나 존중되고 있는지에 대해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인식하는 것을 자기인권평가(김영미, 2016) 혹은 인권 존중정도(천정웅, 2014)라고 할 수 있다. 자기인권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우나, 김영미(2016)는 폭력피해 및 우울이 자기인권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본인의 인권이 존중 받지 못하고, 침해되는 폭력피해 경험을 통해 스스로의 인권을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게 되며, 간접적으로 우울을 통해서도 폭력피해가 자기인권평가에도 영향을 준다. 또한 폭력피해와 반대되는, 스스로의 의견이 존중받는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본인의 의견이나 행동을 통해 주변 상황에 영향력을 끼치고 통제하는 경험을 통해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

다중폭력피해자가 한번 폭력을 경험한 이후, 또 다른 상황에서 다른 가해자에서 폭력피해를 중복적으로 경험하는 현상과 같이, 개별 청소년이 인권을 존중받

는 경험 역시 청소년이 생활하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 여러 체계에서 중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스스로 인권을 존중받고 본인의 의견이나 행동을 통해 상황을 통제할 경험이 누적되는 경우 다른 상황에서도 그러한 통제력을 발휘하고자 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명진, 봉미미, 2013).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가정, 학교, 국가 및 사이버 상에서 스스로의 인권존중정도를 주관적으로 평가한 것을 바탕으로 잠재유형을 분류하고자 하며, 잠재유형에 따른 정신건강 특성(자아존중감, 우울, 자살 생각) 및 예측변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4. 청소년의 차별가해 행동

청소년의 차별가해 행동은 또래 간에 특정 대상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으로 인해 가지게 되는 부정적 행위와 태도라고 할 수 있다(정규형, 2016). 성별, 연령, 외모, 가정형편, 신체조건 등 다양한 특성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은 부당하게 타인을 대우하는 행동이나 태도로 이어질 수 있다. 차별행동을 일종의 비행 혹은 비합법적인 행동으로 간주하여 일반긴장이론으로 그 발생 원인을 설명하거나 사회학습이론으로 발생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Agnew의 일반긴장이론(general strain theory)은 범죄 혹은 비행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긴장이 발생할 때 개인이 이를 합법적이고 적절히 대처할 만한 기술이 부족하며 주변 사람으로부터의 지지가 부족하면 비행이나 범죄와 같은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긴장을 해소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긴장(strain)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타인에 의해 취급당할 때 발생하는데(Agnew, 1992),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사건 그 자체가 긴장일 수도 있으며 혹은 그 사건에 대해 개인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일 수도 있다. 부정적인 사건은 비교적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며, 객관적으로 발생하는 신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 의식주가 충족되지 않는 상태 등이나, 이혼이나, 가족구성원의

죽음 같은 사건을 경험하면서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일 수도 있다(Agnew, 2001). 이렇게 발생한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부적응적인 대처방식의 하나로 범죄나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선택되는 부적응적인 대처방식은 사회학습이론에서 말하는 모방, 관찰학습에 의해 선택되기도 한다(Agnew, 2001). 즉, 폭력피해를 입은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피해자가 직접 경험했던 폭력을 학습하고 모방하는 방식을 선택하게 되면서 폭력의 가해자가 되어 긴장을 해소하는 식이다.

국내의 연구들은 폭력피해 경험 혹은 차별피해 경험이 폭력 가해 혹은 차별가해 경험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정규형(2016)과 홍기혜(2019)는 차별피해경험이 차별가해 경험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구정화(2016)는 교사로부터의 체벌경험이나 욕설경험이 증가할 때, 또래로부터의 폭력 피해 경험이 증가할 때에는 차별가해 경험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또한 사생활에 관련한 공개 검사 경험이나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 경험이 많을수록 차별가해 경험은 증가하였다. 차유정과 황의갑(2017)은 부모로부터의 학대, 교사로부터의 학대, 또래로부터의 학대가 차별가해에 직접적으로 혹은 부정적 감정을 매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김희진(2017)도 가정에서의 폭력, 학교에서 또래에 의한 폭력, 사이버 상에서의 폭력 피해 경험이 차별행위에 직접적으로 혹은 우울을 매개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긍정적인 경험들은 차별가해 경험을 감소시켰는데, 학교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할 때 차별가해 경험이 감소한다고 하였고, 또한 학생회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받고 학교 규칙 운영에 참여할수록 차별가해 경험은 감소하였다(구정화, 2016). 그 외에도 차별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김진석(2017)은 여성인 경우 차별가해 행동이 적었고, 나이가 많을수록 차별가해 행동이 많았으며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이, 학교성적이 좋을수록 차별가해행동이 많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가정형편이 좋을수록 차별가해는 감소하였고, 모의 교육수준

이 대학졸업이상인 경우 차별가해는 감소하였다. 인권정보 접근성이 높을수록 차별가해 행동이 증가하였고, 인권교육 도움정도가 높을수록 차별가해 행동은 감소하였다. 김승경 외(2016)는 학교급이 높고 가정형편이 어려울수록 차별한 경험이 많다고 보고하였다.

5. 청소년의 인권의식

인권의식이란 자신과 타인에게 부여된 권리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존중하며 옹호하려는 태도(김자영, 2012)라 할 수 있다. 즉, 인권의식은 인지적 측면만이 아니라 실천적, 행동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인권의식의 형성 과정을 사회학습이론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데 관찰 학습을 통해서 일상에서 인권을 존중받는 경험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인권을 존중하고 옹호하려는 태도를 배우고 형성할 수 있다.

현안나(2016)는 청소년이 가정이나 학교에서 의견을 표명하거나 참여를 존중받는 경험을 하게 되면, 인권의식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천정웅(2014)도 개인의 인권에 대한 평가인 인권존중정도는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혹은 직접적으로 인권의식을 향상시킨다고 하였다. 즉, 학교나 가정에서의 인권존중경험을 통해 스스로의 인권이 존중받는 정도에 대한 평가인 자기인권평가와 인권의식이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자기인권평가라는 인지적 평가가 타인에 대한 인권의식에 선행하는 것으로 선행연구는 밝히고 있으나(천정웅, 2014) 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많지 않다.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본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가정, 학교, 지역 및 국가에서 청소년이 본인의 인권을 존중받는 경험을 많이 할수록 타인에 대한 인권의식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유성렬, 2013; 천정웅, 2014; 현안나, 2016).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존중할수록, 학교에서 참여 여건이 많이 보장될수록, 가정이나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과 같은 청소년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할수

록 인권의식이 높아졌다. 학생의 참여를 존중하고 교사가 학생을 존중하는 친인권적 학교환경과 부모가 자녀를 존중하는 가정환경이 인권의식에 정적인 영향을 줄 때,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밝힌 연구도 있다(현안나, 2016). 또한, 김진석(2017)은 인권교육의 도움정도가 높을수록, 인권기관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인권의식이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그 외에도 김진석(2017)과 유성렬(2013)은 여학생인 경우 그리고 학교성적이 높을수록 인권의식이 높다고 하였다.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인권의식은 낮아졌으며, 부모의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인권의식은 증가하였다(유성렬, 2013).

반면 폭력피해가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본 연구들은 폭력피해로 인해 피해자가 인지적, 정서적으로 변화를 경험하여 이로 인해 타인에게도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한다고 하였다(김영미, 2016; 최하영, 이소민, 2019).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주로 인권친화적인 가정 및 학교환경, 혹은 인권교육 등이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고, 폭력 피해가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더 적다.

○ — 제3장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 2. 연구변인
- 3. 분석 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실시한 2019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 참석한 중학생과 고등학생 6,409명이다.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는 매년 전국의 우리나라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약 9,000명을 대상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반하여 개발된 인권지표체계에 따라 인권영역별 실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김영지, 김희진, 이민희, 김진호, 2017). 자기기입식으로 조사되며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 및 변화를 파악하여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김영지 외, 2017). 본 연구에서는 중고등학생 자료를 활용하였다.

2. 연구변인

1) 잠재유형 분류 및 정신건강 특성 이해를 위한 변인

(1) 폭력피해 경험

폭력피해 경험의 잠재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폭력피해 경험을 측정하는 11개의 문항을 활용하였다. 부모님(보호자)의 체벌, 언어폭력, 방임, 학교 선생님의 체벌

과 언어폭력, 학교 친구나 선후배의 구타 및 언어폭력과 따돌림, 사이버 상의 원치 않는 사생활 공개 및 언어폭력 및 성폭력(성희롱과 성추행)을 포함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가정 내 폭력 피해는 부모님(보호자)로부터 지난 1년 동안 ‘신체적 벌’을 받은 적이 있는지(예=1, 아니오=0), ‘모욕적인 말(욕설)’을 들은 적이 있는지(예=1, 아니오=0), 방임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예=1, 아니오=0)로 측정되었다. 방임 경험은 더러운 옷이나 이불에서 생활한 경험, 아픈데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 학교에 결석해도 부모님이 신경 쓰지 않는 경험, 식사를 못해도 부모님이 신경 쓰지 않는 경험 가운데 하나 이상이 발생한 경우 방임 경험이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학교 선생님께서부터의 폭력은 선생님께서부터 지난 1년 동안 ‘신체적 벌’을 받은 적이 있는지(예=1, 아니오=0), ‘모욕적인 말(욕설)’을 들은 적이 있는지(예=1, 아니오=0)의 두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학교 친구나 선후배로부터의 폭력은 지난 1년 동안 학교에서 친구, 선후배로부터 ‘폭행이나 구타’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예=1, 아니오=0),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당한 적이 있는지(예=1, 아니오=0),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는지(예=1, 아니오=0)로 측정되었다. 사이버 폭력은 지난 1년간 ‘인터넷(게시판 댓글, 카톡 등 채팅, 메신저, 페이스북 북 등 SNS)에서 욕설이나 모욕’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예=1, 아니오=0),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활의 폭로’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예=1, 아니오=0)로 측정하였다. 성폭력(성희롱, 성추행)은 지난 1년간 ‘성적인 놀림이나 원하지 않는 접촉’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예=1, 아니오=0)로 측정하였다.

(2) 자기인권평가

자기인권평가의 잠재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4개의 자기인권평가 문항을 활용하였다. ‘가정에서 나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학교에서 나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나라 전체에서 나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나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의 문항이며,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1)에서 매우 존중받는다(4)로 응답하였다.

(3) 청소년의 정신건강

정신건강은 우울불안, 자아존중감, 자살생각의 3가지로 측정되었다. 우울불안은 이유 없이 외로운 적, 불안한 적,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3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자아존중감은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는 지,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의 4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우울불안과 자아존중감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4)’의 4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자살생각은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적이 있는지의 1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가끔 생각한다’, ‘자주 생각한다’의 3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2) 잠재유형의 예측변인에 활용된 개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 변인

폭력피해 경험 및 자기인권평가의 잠재유형을 예측하는 변인을 찾기 위해 개인, 가족, 학교, 사회의 다양한 변인을 고려하였다. 아래에 설명된 변인들 가운데, 폭력피해 경험 잠재유형의 예측변인과 자기인권평가 잠재유형의 예측변인을 앞서 설명한 이론 및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표 III-1과 같이 선택적으로 사용하였다. 폭력피해 경험 잠재유형의 예측변인으로는 성별, 학년, 학업성적, 건강상태, 가족구조, 가정형편, 가정 내 자녀 존중 정도, 학교에서 학생 존중정도, 지역사회 안전도를 고려하였다. 자기인권평가의 잠재유형의 예측변인으로는 성별, 학년, 학업성적, 차별피해 경험, 가족구조, 가정형편, 가정 내 신체 및 언어폭력 정도, 가정 내 방임 정도, 교사의 신체 및 언어폭력 정도, 또래 폭력 정도, 사이버 폭력 정도, 가정 내 자녀 존중정도, 학교에서 학생 존중정도, 지역사회 안전도를 고려하였다.

표 III -1. 잠재유형의 예측모형에서 고려한 변인들

	폭력피해 잠재유형의 예측변인	자기인권평가 잠재유형의 예측변인
성별	○	○
학년	○	○
학업성적	○	○
주관적 건강상태	○	
차별피해 경험		○
가족구조	○	○
가정형편	○	○
가정 내 폭력 정도		○
가정 내 방임 정도		○
교사 폭력 정도		○
또래 폭력 정도		○
사이버 폭력 정도		○
가정 내 자녀존중 정도	○	○
학교 내 학생존중 정도	○	○
지역사회 안전도	○	○

개인 특성 가운데 성별은(남=0, 여=1)로 측정되었고, 학년은 연속변수로 취급되었다. 학교성적은 ‘지난 학기 반에서 대략 어느 정도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으로 측정되었으며 ‘매우 못하는 수준’(1)에서 ‘매우 잘하는 수준’(5)으로 구성되었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1)에서 매우 건강하다(4)로 측정되었다. 차별피해 경험은 4개의 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이다. 응답은 ‘한 번도 없음’(1), ‘일 년에 1-2회 정도’(2), ‘2-3개월에 1-2회 정도’(3), ‘한 달에 1-2회 정도’(4), ‘1주일에 1-2회 이상’(5)으로 측정되었으며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가족특성 중 가족구조는 한부모가정(예=1, 아니오=0)여부로 측정되었으며, 가정형편은 응답자가 지각한 가정의 경제수준으로 ‘매우 못 산다’에서 ‘매우 잘 산다’를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가정 내 신체 및 언어폭력 정도는 최근 1년 동안 양육자의 ‘신체적 별’과 ‘모욕적인 말(욕설)’을 들은 횟수이며 ‘한 번도 없음’(1)에서 ‘1주일에 1-2회 이상’(5)에 응답한 값을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가정 내 방임 정도는 최근 1년 동안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지내거나, 그런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다’,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식사를 못해도 신경쓰지 않는다’,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학교를 결석해도 신경쓰지 않는다’의 4문항에 ‘한 번도 없음’(1)에서 ‘1주일에 1-2회 이상’(5)으로 응답한 값을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교사의 신체 및 언어폭력 정도는 최근 1년 동안 ‘학교선생님으로부터의 신체적 별’, ‘모욕적인 말(욕설)’에 ‘한 번도 없음’(1)에서 ‘1주일에 1-2회 이상’(5)으로 응답한 값을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또래 폭력 정도는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친구, 선배나 후배로부터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당함’, ‘폭행이나 구타를 당함’, ‘따돌림을 당함’, ‘돈이나 물건을 빼앗김’, ‘성적인 희롱(놀림)이나 추행을 당함’, ‘강제적인 심부름’에 ‘한 번도 없음’(1)에서 ‘1주일에 1-2회 이상’(5)으로 응답한 값을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사이버 폭력 정도는 최근 1년 동안 인터넷(게시판 댓글, 카톡 등 채팅·메신저, 페이스북 등 SNS)에서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음’, ‘협박을 당함’, ‘성희롱(놀림)을 당함’,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 널리 알려짐’, ‘따돌림을 당함’에 ‘한 번도 없음’(1)에서 ‘1주일에 1-2회 이상’(5)으로 응답한 값을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가정 내 자녀 존중 정도는 의사결정 시 부모님이 ‘집안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진학할 상급학교를 결정 할 때’, ‘장래희망을 결정할 때’, ‘공부시간이나 방법을 결정 할 때’ 자녀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정도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4)로 측정된 값을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학교의 학생 존중은, ‘학교에서 규칙이나 규정을 만들 때’ 학생의 의견을 존중하는 정도 및 ‘교육비를 내지

않은 학생의 이름 공개' 빈도, '징계 받은 학생의 이름과 내용 공개' 빈도, '시험 성적 공개 빈도'에 대한 값을 합산하여 사용하였고('전혀 아님'=1, '매우 그러함'=4), 원하지 않는 공개에 대한 문항의 응답은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학생 존중 및 참여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지역사회의 안전도는, '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우리 동네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의 2문항으로 측정되었고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4)로 구성되었으며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3) 잠재유형이 차별가해 행동 및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 관련 변인

폭력피해 잠재유형이 차별가해 행동 및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인권평가 잠재유형이 차별가해 행동 및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사용된 변인들은 표 III-2와 같다. 앞에서 설명한 변인들 가운데 일부가 사용되었고, 그 외에 차별가해 행동은 7개의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엄마나 아빠가 안 계신다고, 혹은 부모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다문화 가정(부모님 중 한 분 이상이 외국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의 문항은 '한 번도 없음'(1), '일 년에 1-2회 정도'(2), '2-3개월에 1-2회 정도'(3), '한 달에 1-2회 정도'(4), '1주일에 1-2회 이상'(5)로 측정되었으며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인권의식은 7개의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청소년은 아직 어려서 결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 '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의견을 대변하는 모임이나 조직(예: 학생회 등)은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4)로 응답한 값을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인권교육의 도움정도는 3개의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인권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는 경우 ‘인권의 개념과 인권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알게 되었다’, ‘나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생각과 태도를 갖게 되었다’, ‘인권침해와 차별을 극복하고 인권보호를 위해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의 3개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4)에 응답한 값을 합산하여 사용하였고 인권교육 경험 이 없는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로 응답한 것으로 취급하였다.

표 III-2. 잠재유형의 영향 분석에서 투입된 변인들

	폭력피해 잠재유형이 차별가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	폭력피해 잠재유형이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	자기인권평가 잠재유형이 차별가해 행동 에 미치는 영향	자기인권평가 잠재유형이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
폭력피해 잠재유형	○	○		
자기인권평가 잠재유형			○	○
성별	○	○	○	○
학년	○	○	○	○
학업성적	○	○	○	○
차별피해경험	○		○	
인권교육도움정도	○	○	○	○
자아존중감		○		○
가족구조	○	○	○	○
가정형편	○	○	○	○
가정 내 폭력 정도			○	○
가정 내 방임 정도			○	○
교사 폭력 정도			○	○
또래 폭력 정도			○	○

	폭력피해 잠재유형이 차별가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	폭력피해 잠재유형이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	자기인권평가 잠재유형이 차별가해 행동 에 미치는 영향	자기인권평가 잠재유형이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
사이버 폭력 정도			○	○
지역사회 안전도			○	○
가정 내 자녀존중 정도	○	○		
학교 내 학생존중 정도	○	○		
지역사회 안전도	○	○		

3. 분석 방법

연구대상의 특성에 대한 기술적 통계분석 이후, 폭력피해 경험에 관련된 11개의 더미변수를 활용하여 잠재집단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폭력경험의 잠재유형을 분류한 후, 각 유형의 정신건강 특성을 기술적 통계 및 교차분석, 평균 비교를 통해 살펴보았다. 자기인권평가의 잠재유형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4개의 연속변수를 활용하여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을 실시하였고 마찬가지로 각 유형의 정신건강 특성을 기술적 통계 및 교차분석, 평균 비교를 통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폭력피해 잠재유형의 예측변인을 발견하기 위해 기준집단인 폭력 무피해 집단에 비해 다른 폭력피해 잠재유형의 예측변인을 살펴보았다. 자기인권평가 잠재유형 가운데 기준집단인 낮은 자기인권평가 집단에 비해 높은 자기인권평가 집단의 예측변인을 살펴보기 위해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폭력피해 잠재유형과 자기인권평가 잠재유형이 차별가해 행동과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제4장 연구결과

- 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2. 잠재유형 분류
- 3. 잠재유형별 정신건강
- 4. 잠재유형의 예측변인
- 5. 폭력피해 및 자기인권평가
잠재유형의 영향

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대상을 학년으로 살펴본 결과, 중학생이 46.5%, 고등학생이 53.6%를 차지하였다. 남학생이 52.2%로 47.8%를 차지한 여학생보다 조금 더 많았다. 89.9%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양부모가정에서 자라나고 있었으며, 한부모가정은 8.7%, 조손가정과 기타(친척, 시설, 가족 없음)가 1.4%였다. 가정형편은 보통이라고 답한 비율이 37.7%였고, 보통 이하가 10.8%, 보통 이상이 50.4%였다. 학업성적은 중간이 41.8%, 중간 이하가 29.9%, 중간 이상이 28.2%였다.

표 IV-1. 연구참여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빈도(명)	빈도(비율)
학년	중1	930	14.5
	중2	1004	15.7
	중3	1042	16.3
	고1	1021	15.9
	고2	1138	17.8
	고3	1273	19.9
성별	남	3343	52.2
	여	3066	47.8
가구형태	조손가정	44	0.7
	양부모	5761	89.9
	한부모	557	8.7
	기타	44	0.7
	모름	3	0.0

		빈도(명)	빈도(비율)
가정형편	1 매우 못산다	28	0.4
	2	114	1.8
	3	613	9.6
	4 보통	2417	37.7
	5	2114	33.0
	6	845	13.2
	7 매우 잘산다	271	4.2
학업성적	매우 못하는 수준	468	7.3
	못하는 수준	1451	22.6
	중간	2676	41.8
	잘하는 수준	1282	20.0
	매우 잘하는 수준	526	8.2

* 주: 학교: n=6,408, 성별: n=6,409, 가구형태: n=6,409, 가정형편: n=6,402, 학업성적: n=6,403

2. 잠재유형 분류

1) 폭력피해 잠재유형 분류

폭력경험에 대한 11개의 더미변수(양육자 방임, 양육자 체벌, 양육자 폭언, 교사 체벌, 교사 폭언, 또래 및 선배 폭력, 또래 및 선배 폭언, 또래 및 선배 따돌림, 사이버 상 사생활 폭로, 사이버 상 폭언, 성희롱/성폭행)를 활용하여 잠재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IV-2에서 제시된 바와 같으며, 4집단 모델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AIC, BIC, adjusted BIC 등의 모델 적합도는 그 값이 적을수록, entropy는 1에 가까울수록 이상적인 모델로 간주되며, LRT test는 k-1집단에서 $p < .05$ 이고, k집단에서는 $p > .05$ 인 경우, k-1집단이 적절한 것으로 해석된다 (Anthony & Robbins, 2013; Yampolskaya, Sharrock, Armstrong, Stronzier, & Swanke, 2014). 분석 결과, AIC, BIC, adjusted BIC는 5집단에서 가장 적은 값을 나타내었고 entropy는 4집단에서 가장 큰 값을 나타내었다. LRT test는 모두 유의하였다. 통계적으로는 5집단 혹은 그 이상의 세분화된 집단분류를 고려

해 볼 수 있으나 5집단으로 분류하는 경우 178명으로 구성된 유형이 생성되고, 나머지 4집단과 그 특성에서 큰 차이가 없어, 최종적으로 4집단 모델을 선택하였다. 분류된 그룹들은 질적으로 다른 그룹과의 차별성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집단 분류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된다(Petscher, Schatschneider, & Compton, 2013).

표 IV-2. 폭력피해 잠재유형 수에 따른 모델 적합도 지수

	AIC	BIC	Adjusted BIC	Entropy	LMR LRT	BLRT
2 집단	44977.82	45133.43	45060.34	.733	.000	.000
3 집단	43889.22	44126.01	44014.79	.794	.000	.000
4 집단	43398.10	43716.07	43566.72	.846	.000	.000
5 집단	43131.37	43530.53	43343.04	.831	.008	.009

* 주: LMR LRT: Lo-Mendell-Rubin adjusted likelihood ratio test

BLRT: Bootstrapped likelihood ratio test

분류된 4집단의 특성은 그림 IV-1에 제시되었다. 그림 IV-1의 y축은, 각 집단에 소속된 개인이 11개의 종류별 폭력피해를 경험할 확률(item conditional probability)을 의미한다. 각 집단은 그 특성에 따라 가정 내 피해 집단, 교사피해 집단, 다중피해 집단, 무피해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보다 정확한 수치는 표 IV-3에 제시되었다. 가정 내 피해 집단은 양육자의 체벌과 폭언이 우세한 집단으로 소속된 청소년 개인이 체벌을 경험할 가능성이 60%, 폭언을 경험할 가능성이 90%이다. 교사피해 집단은 교사에 의한 체벌과 폭언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이며, 소속된 청소년 개인은 양육자에 의한 체벌을 받을 가능성을 36%정도, 폭언을 들을 가능성을 45% 가지고 있으며 교사에 의한 폭력과 폭언의 가능성은 100% 이다. 다중피해 집단은 여러 명의 가해자에게 다양한 상황에서 폭력을 경험하는 집단으로 개별 청소년은 또래로부터의 폭언을 경험할 가능성은 80%, 사이버 상에서의 폭언을 경험할 가능성은

73%에 달하였고, 또래로부터의 신체적 폭력(30%), 따돌림(28%), 사이버 상에서 사생활 폭로(36%) 및 성폭력(20%)의 가능성도 가장 높았다. 또한 이들 청소년은 가정에서의 방임을 경험할 가능성은 38%, 체벌을 경험할 가능성은 47%, 폭언 가능성은 65%였고, 교사로부터의 체벌은 31%, 폭언은 56%로 전반적으로 여러 가해자들에게 다양한 폭력피해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다중피해 집단 청소년들은 양육자로부터의 체벌이나 폭언, 교사로부터의 체벌이나 폭력의 가능성이 각각 가정 내 피해 집단과 교사피해 집단에 소속된 청소년들보다 낮았으나, 양육자로부터의 방임 가능성은 4개 집단 가운데 가장 높았다. 가정 내 피해 집단은 1,504명으로 전체 6,409명 가운데 23.5%를 차지하였으며, 무피해 집단은 4,008명으로 62.5%, 교사피해 집단은 365명으로 5.7%, 다중피해 집단은 7.7%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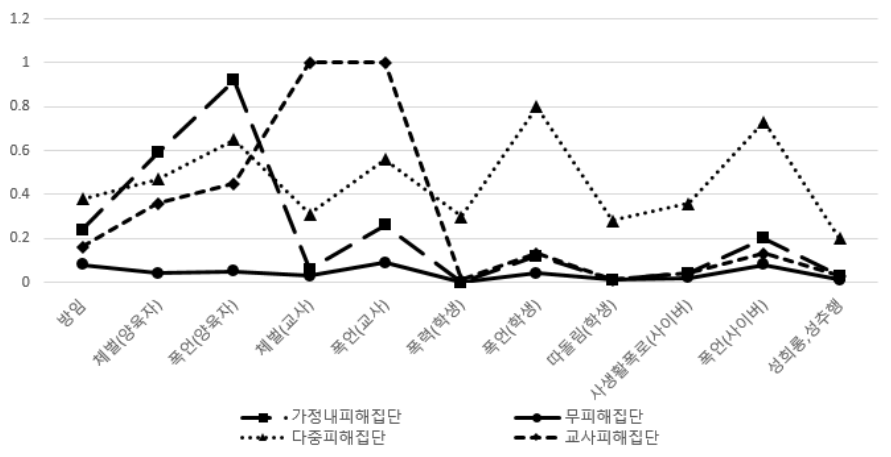


그림 IV-1. 잠재유형별 조건항목확률(conditional item probability)

표 IV-3. 잠재유형별 조건항목확률

	방임	체벌 (양육자)	폭언 (양육자)	체벌 (교사)	폭언 (교사)	폭력 (학생)	폭언 (학생)	따돌림 (학생)	사생활 폭로 (사이버)	폭언 (사이버)	성희롱, 성추행
가정내 피해집단	0.24	0.59	0.92	0.06	0.26	0	0.12	0.01	0.04	0.2	0.03
무피해집단	0.08	0.04	0.05	0.03	0.09	0	0.04	0.01	0.02	0.08	0.01
교사 피해집단	0.16	0.36	0.45	1	1	0.01	0.13	0.01	0.04	0.13	0.03
다중 피해집단	0.38	0.47	0.65	0.31	0.56	0.3	0.8	0.28	0.36	0.73	0.2

2) 자기인권평가 잠재유형 분류

청소년이 스스로가 가정, 학교, 우리나라,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서 인권을 존중 받는 정도를 인식한 내용을 바탕으로 잠재유형을 분류한 결과, 표 IV-4와 같이 2개의 유형이 가장 적절한 모델로 나타났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우리나라에서, 사이버 상에서 인권이 존중받는 정도를 1점(전혀 존중받지 못한다)에서 4점(매우 존중받는다)으로 측정한 문항을 통해 잠재유형을 분류하였다. 3집단 분류에서 AIC, BIC, adjusted BIC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LRT test가 유의하지 않아 2집단으로 분류하였다.

표 IV-4. 자기인권평가 잠재유형 수에 따른 모델 적합도 지수

	AIC	BIC	Adjusted BIC	Entropy	LMR LRT	BLRT
2 집단	47785.78	47873.72	47832.41	1.00	.001	.002
3 집단	35091.30	35213.08	35155.88	1.00	.094	.098

* 주: LMR LRT: Lo-Mendell-Rubin adjusted likelihood ratio test
BLRT: Bootstrapped likelihood ratio test

2개로 분류된 잠재유형의 특성은 그림 IV-2와 같다. 낮은 자기인권평가 유형은 전체적인 평균이 낮은 집단이며, 높은 자기인권평가 유형은 자기인권평가가 높은 집단이라 할 수 있다. 가정에서는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정도로 인권을 존중받는다고 하였으며 학교, 우리나라, 사이버 순으로 인권존중정도를 평가하였다. 높은 자기인권평가 집단과 낮은 자기인권평가 집단은 각각 3,052명, 3,055명으로 거의 균등한 비율을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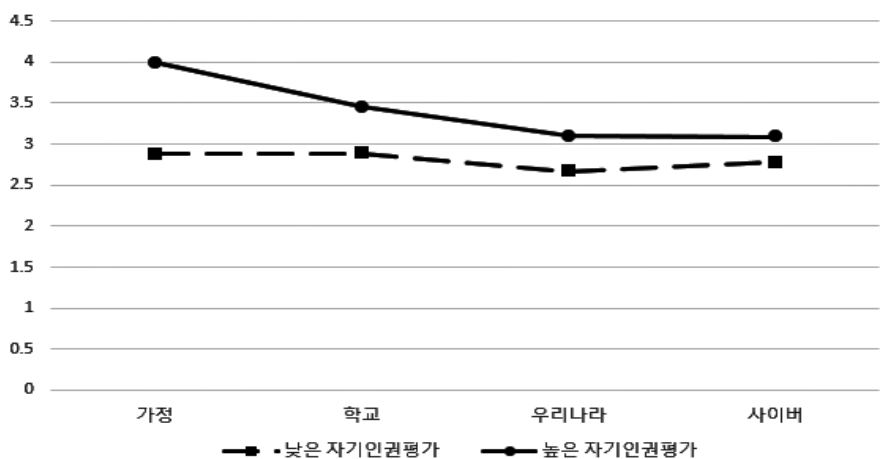


그림 IV-2. 자기인권평가 잠재유형별 조건항목확률(conditional item probability)

표 IV-5. 자기인권평가 잠재유형별 인권존중 정도(평균)

	가정	학교	우리나라	사이버	
낮은 자기인권 평가집단	2.88	2.89	2.67	2.78	n=3,052
높은 자기인권 평가집단	3.99	3.45	3.10	3.09	n=3,055

* 주: 전체 n=6,407

3. 잠재유형별 정신건강

1) 폭력피해 경험의 잠재유형과 정신건강

4개의 집단에 소속된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우울, 자존감, 자살생각을 통해 비교해 본 결과, 표 IV-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울의 경우, 다중피해 집단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그 다음이 가정 내 피해 집단, 교사피해 집단, 그리고 무피해 집단의 순서였다. 자존감은 다중피해 집단과 가정 내 피해 집단이 유의한 수준에서 교사피해 집단과 무피해 집단보다 낮았다. 자살생각에 있어서, 다중피해 집단이 자살을 가끔 혹은 자주 생각하는 빈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가정 내 피해 집단, 그리고 교사피해 집단과 무피해 집단의 순서였다.

표 IV-6. 폭력피해 잠재유형별 정신건강 특성

		교사피해집단 (1)	다중피해집단 (2)	무피해집단 (3)	가정내피해집단 (4)	
우울		6.31(2.78)	7.94(2.58)	5.50(2.65)	7.00(2.60)	모두 유의함
자존감		9.19(2.19)	8.17(2.19)	9.25(2.14)	8.48(2.18)	1, 3 > 2, 4
자살 생각 (%)	생각한적 없음	66.9	42.5	79.6	53.0	.000
	가끔 생각	28.6	44.2	18.1	39.4	
	자주 생각	4.7	13.3	2.3	7.5	

2) 자기인권평가 잠재유형과 정신건강

표 IV-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높은 자기인권평가 집단은 낮은 자기인권평가 집단에 비해 유의한 수준에서 우울이 낮으며, 자존감은 높다. 또한 자살생각을 가끔 혹은 자주하는 비율이 낮았다.

표 IV-7. 자기인권평가 잠재유형별 정신건강 특성

		높은 자기인권평가	낮은 자기인권평가	
우울		5.41(2.71)	6.85(2.63)	$p<.001$
자존감		9.72(2.08)	8.15(2.01)	$p<.001$
자살 생각 (%)	생각한적 없음	79.6	58.6	.000
	가끔 생각	18.7	33.7	
	자주 생각	1.7	7.6	

4. 잠재유형의 예측변인

1) 폭력피해 잠재유형의 예측변인

무피해 집단을 기준집단으로 하여 각기 다른 폭력피해 잠재유형을 예측하는 변인을 살펴보기 위해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IV-8에 제시된 바와 같이 먼저 무피해 집단보다 가정 내 피해 집단에 소속될 가능성이 남학생인 경우($OR=.70$, $p<.001$) 여학생에 비해 30% 낮아졌다. 학년은 높을수록($OR=.95$, $p<.01$) 가정 내 피해 집단에 소속될 가능성이 낮아졌는데 학년이 하나 올라갈 때 약 5% 감소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OR=.76$, $p<.001$), 가정형편이 좋을수록($OR=.93$, $p<.05$) 가정 내 피해 집단에 소속될 가능성이 낮았다. 학업성적은 높을수록 가정 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았다($OR=1.09$, $p<.05$). 가정 내에서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는 정도가 높을수록($OR=.75$, $p<.001$), 학교에서 학생의 참여와 존중정도가 높을수록($OR=.94$, $p<.001$), 그리고 지역사회 안전도가 높을수록($OR=.91$, $p<.001$) 무피해 집단에 비해 가정 내 피해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낮았다. 지역사회 안전도 및 학교에서 학생의 참여 존중정도에 비해 가정 내 자녀 의사존중 정도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상대적으로 가정 내 피해 집단에 소속될 가능성을 더 많이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피해 집단에 비해 교사피해 집단에 소속될 가능성이 남학생인 경우($OR=2.59$,

$p<.001$) 여학생에 비해 약 2.6배 높았다. 또한 가정 내에서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는 정도가 높을수록($OR=.86$, $p<.001$), 학교에서 학생의 참여와 존중정도가 높을수록($OR=.70$, $p<.001$), 그리고 지역사회의 안전도가 높을수록($OR=.88$, $p<.001$) 교사피해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낮았다. 가정 내 자녀 의사 존중이나 지역사회 안전도에 비해 학교에서 학생 참여 및 존중 정도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상대적으로 교사피해 집단에 소속될 가능성을 더 많이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8. 폭력피해 잠재유형의 예측변인

	가정 내 피해 집단		교사피해 집단		다중피해 집단	
	B	OR	B	OR	B	OR
성별						
여						
남	-.36	.70***	.95	2.59***	.10	1.11
학년	-.05	.95**	.04	1.04	-.26	.77***
학업성적	.08	1.09*	-0.4	.96	.01	1.01
건강상태	-.28	.76***	0.3	1.04	-.51	.603***
가족구조						
양부모						
한부모	.05	1.05	.18	1.19	.02	1.02
가정형편	-.08	.93*	-0.2	0.98	-.10	.90*
자녀 존중 정도	-.30	.75***	-.15	.86***	-.24	.79***
학생 존중 정도	-0.6	.94***	-.36	.70***	-.34	.71***
지역사회 안전도	-0.9	.91***	-.13	.88**	-.17	.85***
	$\chi^2=1311.520$ $df=27$ $p=.000$					

* $p<.05$, ** $p<.01$, *** $p<.001$

마지막으로, 무피해 집단에 비해 다중피해 집단의 경우, 학년이 높아질수록($OR=.77$, $p<.001$), 건강상태가 좋을수록($OR=.60$, $p<.001$), 가정형편이 좋을수록

(OR=.90, $p<.05$) 소속 가능성이 낮아졌다.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이 한 단위 증가할수록 다중피해 집단 소속가능성이 40%씩 감소하여, 다른 변인에 비해 상대적 영향력이 컸다. 가정에서 자녀존중 정도가 높을수록(OR=.79, $p<.001$) 학교에서의 참여 및 존중 정도가 높을수록(OR=.71, $p<.001$), 지역사회 안전도가 높을수록(OR=.85, $p<.001$) 소속 가능성이 낮아졌다.

2) 자기인권평가 잠재유형의 예측변인

낮은 자기인권평가 집단에 비해 높은 자기인권평가 집단에 소속되는 것을 예측하는 변인으로는 성별, 학년, 학업성적, 가정형편 외에도 차별피해경험과 가정, 교사, 또래로부터의 폭력 경험 및 존중경험이었다. 여학생인 경우(OR=.87, $p<.05$) 남학생에 비해 높은 자기인권평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은 감소하였으며, 학년이 높을수록 가능성은 역시 감소하였다(OR=.89, $p<.001$). 가정형편이 좋을수록(OR=1.25, $p<.001$), 학업성적이 높을수록(OR=1.16, $p<.001$) 높은 자기인권평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은 증가하였다.

표 IV-9. 자기인권평가 잠재유형의 예측변인

	높은 자기인권평가	
	B	OR
여 남	-.14*	.87
학년	-.12***	.89
학업성적	.15***	1.16
차별피해 경험	-.03*	.97
양부모 한부모	-.19	.82
가정형편	.23***	1.25

	높은 자기인권평가	
	B	OR
가정 내 폭력	-.36***	.70
가정 내 방임	-.17***	.84
교사 폭력	.07**	1.07
또래 폭력	.10***	1.11
사이버 폭력	-.02	.98
가정 내 존중	.52***	1.69
학교에서 존중	.12***	1.12
지역사회 안전	.10***	1.10
	$\chi^2=2387.77$ $p<.001$, $df=14$	

* $p<.05$, ** $p<.01$, *** $p<.001$

차별피해를 많이 경험할수록($OR=.97$, $p<.05$), 가정 내에서 신체적, 언어적 폭력 경험이 많을수록($OR=.70$, $p<.001$), 방임을 빈번하게 경험할수록($OR=.84$, $p<.001$) 높은 자기인권평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은 감소하였다. 반면, 교사로부터의 체벌과 언어폭력을 경험할수록($OR=.107$, $p<.01$), 그리고 또래로부터 폭력을 경험할수록($OR=1.11$, $p<.001$) 오히려 높은 자기인권평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가정 내에서 존중받을수록($OR=1.69$, $p<.001$), 학교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존중받을수록($OR=1.12$, $p<.001$), 그리고 지역사회가 안전하다고 느낄수록($OR=1.10$, $p<.001$) 높은 자기인권평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5. 폭력피해 및 자기인권평가 잠재유형의 영향

1) 폭력피해 잠재유형이 차별가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

표 IV-10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폭력피해 잠재유형 가운데 가정 내 피해 집단을 제외한 교사피해 집단과 다중피해 집단은 차별가해 경험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즉, 청소년이 교사피해 집단에 소속된 경우($b=0.04$, $p<.001$), 그리고 다중피해 집단에 소속된 경우($b=0.15$, $p<.001$) 무피해 집단에 비해 차별가해 행동을 많이 한다는 의미이다. 다중피해 집단에 소속된 것은 차별피해($b=0.44$, $p<.001$) 다음으로 차별가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학교에서 학생 존중 정도가 높을수록 ($b=-0.03$, $p<.01$) 차별가해 행동은 감소하였고,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차별가해 행동은 증가하였으며($b=0.05$, $p<.001$),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차별가해 행동이 적었다($b=-0.07$, $p<.001$). 가정형편은 폭력피해 잠재유형이 투입되지 않은 모델 I에서는 형편이 좋을수록 차별가해 행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b=-0.03$, $p<.001$), 폭력피해 잠재유형이 투입되었을 때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IV-10. 폭력피해 잠재유형이 차별가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

	모델 I		모델 II	
	B	S.E	B	S.E
여 남	-.08***	.06	-.07***	.06
학년	-.02	.02	-.01	.02
학업성적	.05***	.03	.05***	.03
차별피해 경험	.48***	.01	.44***	.01
인권교육 도움 정도	-.01	.01	-.01	.01
양부모 한부모	.01	.09	.01	.09
가정형편	-.03*	.03	-.02	.03

	모델 I		모델 II	
	B	S.E	B	S.E
자녀 존중 정도	-.02	.01	-.01	.01
학생 존중 정도	-.05***	.01	-.03**	.01
지역사회 안전도	-.02	.02	-.02	.02
가정 내 폭력 피해			.02	.07
교사피해			.04***	.12
다중피해			.15***	.11
	R ² =.25, Adjusted R ² =.25		R ² =.27 Adjusted R ² =.26	

* $p<.05$, ** $p<.01$, *** $p<.001$

2) 자기인권평가 잠재유형이 차별가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

표 IV-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높은 자기인권평가 집단에 속한 것은 차별가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여학생인 경우 남학생에 비해 차별가해 행동이 적었고 ($b=-.07$, $p<.001$), 학업성적이 좋을수록($b=.05$, $p<.001$), 차별피해 경험이 많을수록($b=.43$, $p<.001$) 차별가해 행동이 많아졌다. 가정형편이 좋을수록($b=-.03$, $p<.001$) 차별가해 행동이 감소하였으며, 가정 내 폭력이 많을수록($b=.04$, $p<.001$), 또래 폭력을 많이 경험할수록($b=.07$, $p<.001$), 사이버 폭력을 많이 경험할수록($b=.12$, $p<.05$) 차별가해 행동이 증가하였다.

표 IV-11. 자기인권평가가 차별가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

	차별가해		차별가해	
	B	S.E	B	S.E
여 남	-.07***	.06	-.07***	.06
학년	.00	.02	.00	.02
학업성적	.05***	.03	.05***	.03
인권교육 도움 정도	-.02	.01	-.02	.01
차별피해경험	.43***	.01	.43***	.01
양부모 한부모	.01	.09	.01	.09
가정형편	-.02*	.03	-.03*	.03
가정 내 폭력	.03*	.02	.04**	.02
가정 내 방임	.02	.03	.02	.03
교사 폭력	.02	.02	.02	.02
학교 폭력	.07***	.02	.07***	.02
사이버 폭력	.12*	.02	.12*	.02
지역사회 안전도	-.02	.02	-.02	.02
높은 자기인권평가			.02	.06
R ² =.28, Adjusted R ² =.27			R ² =.28, Adjusted R ² =.27	

* $p < .05$, ** $p < .01$, *** $p < .001$

3) 폭력피해 잠재유형이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

폭력피해 잠재유형은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인 경우 인권의식이 남학생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b=.17$, $p<.001$), 인권교육도움 정도가 높을수록 인권의식이 높아졌다($b=.10$, $p<.001$).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인권의식이 높았으며($b=.14$, $p<.001$) 가정형편이 좋을수록 인권의식은 낮아졌다($b=-.05$, $p<.001$). 가정 내에서 부모의 존중을 받을수록($b=.14$, $p<.001$), 학교에서 참여와 존중이 높을수록($b=.13$, $p<.001$), 인권의식도 증가였으며, 가정 내

폭력피해가 많은 경우에도 인권의식이 증가하였다($b=.05$, $p<.001$).

표 IV-12. 폭력피해 잠재유형이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

	인권의식		인권의식	
	B	S.E	B	S.E
여 남	.17***	.07	.17***	.07
학년	.01	.02	.01	.02
학업성적	.03*	.04	.02	.04
인권교육 도움 정도	.10***	.01	.10***	.01
자아존중감	.14***	.02	.14***	.02
양부모 한부모	-.02	.12	-.02	.12
가정형편	-.05***	.04	-.05***	.04
자녀 존중 정도	.13***	.02	.14***	.02
학생 존중 정도	.13***	.02	.13***	.02
지역사회 안전도	-.02	.03	-.02	.03
가정 내 폭력 피해			.05***	.09
교사피해			.01	.16
다중피해			.02	.14
	$R^2=.12$, Adjusted $R^2=.12$		$R^2=.13$ Adjusted $R^2=.12$	

* $p<.05$, ** $p<.01$, *** $p<.001$

4) 자기인권평가가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

높은 자기인권평가 집단에 소속되면 낮은 자기인권평가 집단에 소속되는 것에 비해 개인의 인권의식이 증가하였다($b=.20$, $p<.001$). 또한 여학생인 경우 인권의식이 남학생에 비해 높았으며($b=.18$, $p<.001$), 인권교육 도움정도가 높을수록($b=.11$, $p<.001$),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인권의식이 증가하였다($b=.13$, $p<.001$). 가정형편이 좋을수록 인권의식은 감소하였고($b=-.06$, $p<.001$), 가정 내 방임이 많을수록

($b=-.04$, $p<.001$), 교사의 폭력을 많이 경험할수록($b=-.06$, $p<.001$), 또래 폭력을 많이 경험할수록($b=-.04$, $p<.001$) 인권의식은 낮아졌다. 가정 내 폭력이 많을수록 인권의식이 증가하였다($b=.05$, $p<.01$).

표 IV-13. 자기인권평가가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

	인권의식		인권의식	
	B	S.E	B	S.E
여 남	.18***	.07	.18***	.07
학년	.00	.02	.01	.02
학업성적	.03**	.04	.02	.04
인권교육 도움 정도	.12***	.01	.11***	.01
자아존중감	.18***	.02	.13***	.02
양부모 한부모	-.01	.12	-.01	.12
가정형편	-.04**	.04	-.06***	.04
가정 내 폭력	-.01	.02	.05**	.02
가정 내 방임	-.05***	.04	-.04**	.03
교사 폭력	-.06***	.03	-.06***	.03
학교 폭력	-.04**	.03	-.05**	.03
사이버 폭력	.04*	.03	.04*	.03
지역사회 안전도	.01	.03	-.01	.03
높은 자기인권평가			.20***	.08
$R^2=.10$, Adjusted $R^2=.10$			$R^2=.13$, Adjusted $R^2=.13$	

* $p<.05$, ** $p<.01$, *** $p<.001$

○———— 제5장 결론 및 논의

- 1. 결론 및 논의
- 2. 실천적 제언
- 3. 연구의 한계점

1. 결론 및 논의

1) 폭력피해 경험 및 자기인권평가의 잠재유형과 정신건강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폭력피해 경험과 자기인권평가의 잠재유형을 분류하고 그 특성 및 예측변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잠재집단 분석 결과, 폭력피해 경험은 4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무피해 집단, 가정 내 피해 집단, 교사피해 집단, 다중피해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가정 내 피해 집단에 소속된 청소년은 부모의 체벌과 폭언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교사피해 집단에 소속된 청소년은 교사의 체벌과 폭언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다중피해 집단에 소속된 청소년은 여러 가지 폭력유형을 골고루 경험하는 집단으로 특히 다양한 대상으로부터의 폭언에 다중으로 노출되어 있었다. 또래로부터의 폭언, 사이버 상에서의 폭언의 경험의 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부모로부터의 폭언, 교사로부터의 폭언도 일정 수준이상이다. 무피해 집단이 전체 연구대상의 62.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가정 내 피해 집단은 24%를 차지하며 전체 참여자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했다는 것은, 가정 내 체벌 및 폭언이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음을 나타내준다고 하겠다. 교사피해 집단의 경우에는 교사의 폭력 및 폭언의 경험가능성이 100%에 달하여, 체벌과 언어폭력 모두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 집단에 속한 청소년들은 양육자에 의한 폭력과 폭언피해도 각각 36%, 45%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교사

가 주된 가해자로, 양육자가 부차적인 가해자인 집단이라고 하겠다. 즉, 교사로부터의 피해는 가정 내의 피해와 무관하지 않으며 일정 부분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중피해 집단의 경우 여러 폭력 유형에 노출되지만, 특히 다양한 주체에 의한 언어적 폭력에 시달리고 있었다. 특히 또래로부터의 언어폭력과 사이버 상에서의 언어폭력의 가능성이 높고 교사 및 양육자로부터의 언어폭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중폭력피해 집단의 특성이 학교폭력 피해자의 특성과 유사하면서도 이들이 교사나 양육자로부터의 폭력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무피해 집단을 제외하면 전체 청소년의 37.5%가 특정한 폭력피해를 경험하고 있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폭력피해로부터 안전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가정 내 체벌 및 자녀에 대한 폭언이 여전히 만연하며, 학교에서도 체벌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학생들은 폭력과 폭언을 경험하고 있다. 다중피해 집단은 가정에서부터 학교 교사 및 또래, 사이버 상에서 특히 언어적인 폭력에 시달리는 비율이 높았다. 다중피해 집단은 우울감에서 나머지 집단에 비해 유의한 수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으며, 자살생각의 빈도도 가장 빈번하였다. 다중폭력피해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내주는 결과로 단독폭력유형보다 그 해가 심각함을 말해 선행연구와 일치한다(김재엽 외, 2016b; 김준범, 최윤희, 2018; 윤명숙, 조혜정, 2008; 이인선, 최지현, 2014; 최진영, 김기현, 2019; Davis et al., 2018; Finkelhor et al., 2007; Ford, Elhai, Connor, & Frueh, 2010; Jackson-Hollis, Joseph, & Browne, 2017). 나머지 집단에서는 가정 내 피해 집단, 교사피해 집단, 그리고 무피해 집단의 순서로 우울과 자살생각 빈도가 높았다. 보다 친밀한 관계의 대상인 양육자로부터의 폭력피해가 교사로부터의 피해보다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자아존중감은 다중피해 집단과 가정 내 피해 집단이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었고 무피해 집단과 교사피해 집단이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었다. 폭력피해는 개인에게 심각한 스트레

스를 일으키는 사건으로서 자아존중감과 같은 심리특성보다 우울이나 자살생각과 같은 부정적인 심리증상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정, 학교, 우리나라, 그리고 사이버 상에서 인권이 존중받는 정도에 대한 주관적 자기인권평가는 잠재프로파일 분석 결과 2개의 잠재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높은 자기인권평가 집단과 낮은 자기인권평가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높은 자기인권평가 집단은 가정, 학교, 우리나라, 그리고 사이버 상에서 전반적으로 본인의 인권이 존중받는 정도를 높이 평가하였는데, 특히 가정에서 매우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우리나라와 사이버 상에서는 존중받는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반대로 낮은 자기인권평가 집단은 가정에서 인권이 존중받는 편이라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영역에서는 그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보고하였다. 4점 척도로 구성된 4개의 문항으로 자기인권평가가 측정되어 잠재프로파일 분석이 더 세부적인 잠재유형을 도출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어떤 한 영역이 아니라 여러 영역에 걸쳐 전반적으로 높게 인식하거나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또한, 정신건강 특성에서 높은 자기인권평가 집단이 유의한 수준에서 높은 자아존중감, 낮은 우울, 덜 빈번한 자살생각을 나타내었다.

2) 폭력피해 경험 및 자기인권평가 잠재유형의 예측변인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통해 폭력피해 잠재유형별 예측변인을 살펴본 결과, 무피해 집단에 비해서 여학생인 경우 가정 내 피해 집단에, 남학생인 경우 교사피해 집단에 소속될 가능성이 높았다. 기준집단인 무피해 집단의 성별 구성과 비교하여, 여학생인 경우 가정 내에서 양육자의 폭력이나 폭언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으며, 남학생의 경우 교사의 폭력이나 폭언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남학생인 경우 교사피해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여학생에 비해 2.6배 가량으로, 학교에서 교사들이 체벌과 폭언의 대상이 남학생인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말해준다. 이는 성별에 따라 양육자나 교사들이 청소년들과 상호작용

하는 방식이 상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가정 내 피해 집단과 다중피해 집단에 소속될 가능성은 감소하였는데, 특히 다중피해 집단의 경우 학년이 하나 증가할 때마다, 그 소속 가능성이 23%씩 감소하여, 학년이 낮을수록 다중폭력피해의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대상이 중학생과 고등학생이므로, 고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이 다중피해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폭력의 종류 및 연구대상의 연령이 상이하며 성별 및 연령과 중복폭력 혹은 다중폭력피해의 관계에 대해 상이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김재엽, 최윤희, 장대연, 2019; 김준범, 최윤희, 2018; 이인선, 최지현, 2014). 하지만 개별적인 폭력유형을 살펴본 경우 중학교에 해당하는 전기청소년기에 양육자로부터의 신체적, 언어적 학대의 발생비율이 높은 것(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8), 연령이 어릴수록 학교폭력 피해율이 높은 것(교육부, 2019)으로 보고되고 있고,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이해할 수 있겠다.

학업성적이 좋을수록 가정 내 피해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증가하였는데, 부모의 기대가 높고 학업성적을 유지하기 위해 양육자가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일 수 있지만, 학업성적이 낮은 경우에도 양육자의 학업에 대한 압력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단정 짓기보다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가정 내 피해 집단과 다중피해 집단에 소속될 가능성이 감소하였고, 다중집단의 경우 특히 그 영향이 크게 나타난 점이 주목할 만하다. 건강, 장애 등은 청소년이 가진 취약성(vulnerability)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아동학대의 경우 아동의 장애와 같은 건강상의 문제는 학대피해의 위험요소로 보고되며, 학교폭력의 경우 질병이나 장애가 있을 때 피해 위험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Pinquart, 2017). 또한, 신체적으로 성인의 수준에 도달하는 고등학교 시기에는 중학교 시기에 비교하여 신체학대가 감소한다(배화옥, 강지영, 2016). 가정형편이 좋을수록 가정 내 피해와 다중피해 집단에 소속될 가능성은 감소하였는데, 부모의

스트레스로 인한 아동학대의 가능성이 가정형편이 좋을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것은, 건강상태와 비슷하게 폭력가해 대상으로서 취약성(vulnerability)으로 인식되는 것일 수 있다.

가정 내 피해, 교사피해, 다중피해 집단 모두에 대해 가정에서의 존중정도, 학교에서의 참여 및 존중 정도가 증가할수록 각 폭력피해 집단에 소속될 가능성은 낮아졌다. 이는 평소에 가정과 학교에서 의사를 표현하고 존중받으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폭력피해 가능성을 낮추는 것과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또한, 가정 내에서 자녀에 대한 의사존중은 부모의 양육방식의 일부분으로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양육방식인 신체폭력이나 언어폭력과도 연관성이 있겠다. 학교에서의 학생참여 및 존중 역시 교사들과 학생들의 상호작용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작용을 할 것이라 추측된다. 즉, 가정과 학교에서의 존중 및 참여는 청소년이 경험하는 환경에서 양육자와 교사가 자녀 및 학생과 교류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며, 청소년 자신 역시 양육자와 교사의 행동에 대처하거나 다른 또래 학생들과 교류하며 상호작용 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폭력의 중복피해 혹은 다중피해 위험에 노출된 피해자는 학습된 무기력으로 인해 이미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경험으로, 유사한 상황에 처할 때 수동적으로 대처하거나 무감각해지면서 중복된 피해를 경험할 수 있지만 이와 반대로 청소년이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음을 가정과 학교에서 확인하고 경험하게 되면, 폭력피해상황을 피하거나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되어 폭력피해로부터 벗어나 무피해 집단에 소속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안전도가 높을수록 폭력피해 가능성 역시 줄어들어 지역사회 환경이 청소년개인의 폭력피해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지역사회가 범죄와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을 때 양육자는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혹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느끼는 스트레스로 인해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교사 역시 지역사회에 위치한 학교에서는 학생들 간에도 폭력이 보다

빈번할 수 있고, 이를 통제하기 위해 혹은 지역사회의 빈번한 범죄나 사고 등으로 인해 폭력에 무감각해져서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될 수 있다. 또래 간에도 지역사회에서의 범죄나 폭력 등을 학습하거나 이에 대해 무감각해져 폭력적인 방식을 빈번하게 사용하게 될 수 있다.

높은 자기인권평가의 예측변인 가운데 그 영향력이 가장 큰 것은 가정 내에서 부모에게 의견을 존중받는 것과 부모로부터의 폭력을 경험하는 것이었다. 의견을 존중 받을수록 높은 자기인권평가 집단에 소속될 가능성이 증가하였고, 가정 내에서 폭력과 방임을 많이 경험할수록 가능성이 감소하여 양육자와의 관계가 청소년이 느끼는 인권존중 정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사의 폭력과 또래의 폭력을 경험할수록 높은 자기인권집단에 소속될 가능성이 높은 결과는 예상과 다른 결과로 재검증이 필요하다. 학교에서 존중받고 참여하는 것 역시 청소년이 높은 자기인권평가 집단에 소속되는데 영향을 미쳤다. 지역사회의 안전도가 높을 때, 높은 자기인권평가 집단에 소속될 가능성이 증가하여 지역사회의 중요성도 밝혀졌다. 학업성적이나 가정형편이 좋을수록 높은 자기인권평가 집단에 소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실제로 개별청소년이 학교성적이나 가정형편에 따라 가정, 학교, 사회에서 다르게 대우를 받고 있거나, 혹은 본인의 학교성적이나 가정형편이 좋은 청소년들이 인권존중 경험을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일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청소년들이 학교성적이나 가정형편에 따라 인권존중정도를 다르게 인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청소년 및 학부모, 교사를 포함한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인식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3) 폭력피해와 자기인권평가의 잠재유형이 차별가해 행동 및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

폭력피해의 잠재유형이 차별가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을 때, 다중피해 집단에 소속된 경우 다른 폭력피해 잠재유형에 소속된 것에 비해 차별가해

행동을 큰 폭으로 증가시켰다. 가정 내 피해 집단에 소속된 것은 차별가해 행동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이 없었으며, 교사피해 집단에 소속된 경우 차별가해 행동의 증가가 있었지만 그 영향이 다중피해 집단에 소속된 경우에 비해 작았다. 일반긴장 이론에서는 폭력피해로 발생한 긴장을 해소하는데 비행과 같은 비합법적인 행동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데(Agnew, 1992), 가정 내 폭력피해 혹은 교사에 의한 폭력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긴장을 유발하거나, 혹은 긴장을 유발하더라도 차별가해 행동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청소년이 대처하는 것일 수 있다. 혹은, 다중 피해 집단은 양육자나 교사로부터의 폭력에 더하여 또래로부터의 폭력을 경험하는 집단이며, 따라서 주로 또래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차별가해 행동을 통해서 긴장을 해소하는 것일 수 있다. 차별피해 경험이 많을수록 차별가해 행동도 증가하였고 성적이 높을수록 차별가해 행동도 증가하였다. 반면 높은 자기인권평가 집단에 소속된 것은 낮은 자기인권평가 집단 소속에 비해 차별가해 행동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반면, 자기인권평가 잠재유형은 차별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가정 내 폭력이나 학교폭력, 사이버 폭력 등이 차별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차별가해 행동은 폭력이나 차별피해 경험이 인권존중 경험보다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차별가해 행동에는 인권교육 도움정도 혹은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존중정도에 비해 폭력 피해 유형 및 정도, 차별피해 경험, 폭력 피해 정도 등과 같이 부정적인 인권경험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다.

폭력피해 잠재유형 가운데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친 것은 가정 내 폭력피해 집단 뿐이었다. 무피해 집단에 비해 가정 내 폭력 피해 집단에 소속된 경우 인권의식이 오히려 조금 더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가정 내 방임정도나 교사나 또래의 폭력도 인권의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그 영향이 다소 미미하였고, 가정 내 자녀 존중정도나 학교에서 학생존중 정도, 인권교육 도움 정도와 같은 긍정적인 인권경험이 오히려 인권의식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기인권평

가 잠재유형 가운데 높은 자기인권평가 집단에 속한 것도 인권의식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가정 내 폭력, 방임, 교사 및 학교 폭력 등이 인권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인권교육 도움정도와 높은 자기인권평가 집단 소속과 같은 긍정적 특성이 미치는 영향에 비해 그 크기가 미미하였다. 즉, 인권의식에는 폭력피해와 같은 부정적 인권경험 보다는 인권존중이나 인권교육과 같은 긍정적인 인권경험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아존중감과 같은 개인특성도 인권의식에 정적인 영향을 나타내었다.

2. 실천적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환경에서의 폭력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가정 내 피해 집단의 비율이 전체 청소년의 약 24%에 달한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가정 내에서 체벌과 폭언에 빈번하게 노출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가정 내에서 적절한 대화와 의견조정의 기술이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필요하며, 부모와 청소년 자녀가 함께 참여하여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을 연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확산을 통해 그러한 기술을 익히도록 해야 하겠다. 대중매체를 통해 자녀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양육태도의 중요성과 자녀를 소유물로 여기거나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어야겠다. 즉, 가정 내에서 체벌이나 폭언을 통한 훈육을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대안적인 훈육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하겠다.

학교에서의 체벌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사로부터의 폭력과 폭언의 피해를 집중적으로 경험하는 청소년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의 체벌 금지조항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제고하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확산을 통해 체벌이나 폭언이 사라지는 학교문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기 위한 대안적인 훈육법을 개발하고 익힐 수 있도록 보급되어야 하겠다. 특히, 남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폭력 및 폭언의 가능성이 높는데 남학생들에 대한 효과적인 교사의 지도방법을 교사들이 공동으로 논의하고 공유 및 교육할 필요가 있다. 남학생들이 학교에서 폭력을 학습하여 성인이 되었을 때 군대나 가정, 직장에서 학습한 폭력을 재생산하게 되는 것은 방지하기 위해 학교에서부터 인권친화적인 환경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중피해 집단에서 학교에서 또래나 선배들 사이에 폭력이나 폭언을 경험하는 경우, 사이버 상에서의 폭언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볼 때, 학교폭력피해가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해자의 입장에서 많은 경우, 학교폭력이 단순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가 없이 발생한다는 것은(교육부, 2019) 학생들 사이에 타인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와 공감, 예의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아는 것, 배려와 공감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의 타인과 상호작용 예절을 익히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들을 학교나 가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만들어나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둘째, 폭력피해를 경험하는 청소년들은 우울, 자살생각 등의 정신건강 상태에서 우려스러운 수준을 보여 즉각적이고도 효과적인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다중폭력피해뿐만 아니라 가정 내 피해 집단에 속한 청소년의 47%가 가끔 혹은 자주 자살생각을 한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가정 내 피해 집단의 규모는 전체 참여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집단으로, 가정 내 폭력이 빈번함을 말해주고 있으며,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겠다. 다중피해 집단에 속한 청소년들은 우울과 자살생각에서 가정 내 피해집단과 함께 가장 부정적인 특성을 보이므로 긴급하게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며, 여러 폭력 피해가운데 보다 관찰이 쉬운 학교폭력 피해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 용이하겠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도움을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상담 및 오프라인

상담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상담에서의 비밀보장과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중피해 집단 청소년들은 학습된 무기력의 상태를 내재화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표면적으로 드러난 폭력 피해에 대한 치유와 회복만이 아니라, 앞으로 유사한 상황에 처할 때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인지적, 정서적 힘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셋째, 폭력피해 잠재유형에 대한 예측변인들 가운데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다중피해 집단에 속할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밝혀져 이를 활용한 예방전략이 필요하다 하겠다. 청소년 본인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이로 인한 위축이나 낮은 자존감 등의 특성이 개별청소년이 폭력피해에 더 취약하게 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학교폭력의 경우 질병이나 장애가 있을 때 피해 위험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으며(Pinquart, 2017) 본 연구에서 다중피해 집단은 학교폭력을 포함하여 다양한 상황에서의 폭력을 경험하는 집단이다. 가정형편이나 학업성적 보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다중피해 집단의 소속을 예측하였는데 횡단자료이기에 그 인과성에 한계를 가지긴 하지만, 허약하거나 왜소함 혹은 비만과 그로 인한 정서적인 위축 등이 다중피해의 위험요인일 수 있으므로 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신체건강 및 정신건강을 객관적인 차원에서나 주관적인 차원에서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학교에서 보건교사, 담임교사, 상담교사 등이 협력하여 이들을 개별적 혹은 집단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겠다. 또한 건강이 취약하더라도 개개인이 가진 각기 다른 강점이 강화되고 또래 사이에서 강조되어 개개인의 고유한 개성과 강점이 폭력피해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고 청소년들이 서로의 다양한 강점을 인식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는 학교 및 학급 문화를 만들어 가는 인식개선 프로그램과 교육이 필요하다.

넷째, 가정과 학교에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참여를 높이는 것은 폭력피해 잠재유형에 소속될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가정과 학교에

서의 인권존중은 청소년의 자기인권평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일상적인 환경에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이를 통해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는 것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학교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학교의 규칙 제정 및 개정, 규칙의 위반 시에 대한 대응책 등을 학생과 교사가 함께 마련하는 절차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며, 가정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존중받는 경험은 아동 및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이재연 외, 2018) 이는 사회적 관계 및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부모들이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일상적인 대화나 의사결정에서부터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고 함께 의사결정을 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역이 더 많고, 제정되었다 하더라도 학교에서 일상적인 학생지도가 보다 인권친화적인 되도록 하기 위한 교사들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다섯째, 지역사회 안전과 폭력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때, 지역사회가 범 죄나 사고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식할수록 청소년이 무피해 집단을 제외한 여러 가지 폭력피해 잠재유형에 소속될 가능성이 낮아졌고 청소년의 자기인권평가도 높아졌다. 따라서 폭력발생 및 피해의 감소를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그들이 상호작용하는 가정이나 학교 환경에 개입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노력 역시 요구된다. 지역사회에서 범죄와 사고에 대한 공식적, 비공식적 감시와 신고 및 대응을 강화하여 그 발생을 줄이도록 해야 하겠다. 또한 학교별로 학생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안전도를 낮게 인식하는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하고, 지역사회 범죄나 폭력이 학생들 상호간, 혹은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인권친화적인 학교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교육 및 홍보 등의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한다.

여섯째, 교사피해 집단과 다중피해 집단에 소속된 경우 청소년은 무피해 집단에 비해 차별가해 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폭력의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폭력피해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이나 사회적 관계에서의 어려움, 왜곡된 인지 등에 대해 피해 청소년이 타인에 대한 폭력의 가해가 아닌 건강한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긴장이론에 따르면 긴장이 발생할 때, 적절한 사회적 지지가 없는 경우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비합법적인 방법을 선택한다(Agnew, 1992). 따라서, 폭력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에 대한 공식적, 비공식적 지지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폭력피해를 입은 청소년들 간의 사이버 네트워크를 통한 상호 지지, 대학생 멘토를 통한 지지 및 비합법적 행동에 대한 제재와 감시, 가정 내 양육자와의 관계회복, 또래와의 건강한 상호작용을 맺을 수 있도록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인식 및 사회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전문적 지지 등이 필요하다.

일곱째, 가정이나 학교, 사이버 상에서의 폭력이나, 인권존중 경험은 차별가해 경험 및 자기인권평가에 영향을 미치지만, 상대적으로 폭력 피해와 관련된 부정적 인권경험이 차별가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이 컸고, 인권존중이나 인권교육의 도움 정도와 같은 긍정적인 인권 경험 및 자아존중감 등이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즉, 차별가해 행동과 같은 부정적 행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폭력 피해와 같은 부정적 경험을 감소시키고, 인권의식과 같은 긍정적 태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인권존중이나 인권교육과 같은 긍정적인 경험 및 자아존중감을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차별피해나 폭력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시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접 본인의 인권을 존중받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정, 학교, 사회에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3.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닌다. 먼저, 본 연구에서 활용한 아동·청소년인권 실태조사는 횡단자료를 수집하므로, 본 연구 결과에서 예측변인이 폭력피해 유형 및 자기인권평가에 미치는 영향의 인과성에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추후에는 종단 자료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밝혀진 폭력피해의 예측변인 및 자기인권평가의 예측변인들을 재검증해 볼 필요가 있겠다. 둘째, 2차 자료의 사용으로 인해 개인, 가족 및 학교 특성 등에서 보다 다양한 변인이 예측변인으로 활용되지 못하였다. 특히 다중피해 집단이 가정 내 피해 집단 및 교사피해 집단과의 차별성을 가지는 부분이 뚜렷이 설명되지 못한 점이 한계로 보이며, 추후 다중피해 집단의 특성에 대한 질적 자료 혹은 보다 다양한 변인을 가지고 양적 자료 수집을 통해 그 특성 및 예측변인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해야 하겠다. 셋째, 여러 가지 폭력유형의 측정 도구 가운데 하나의 문항으로만 구성된 경우도 있어 측정의 신뢰도와 타당도에서 한계를 가진다. 또한 자기인권평가의 문항의 수와 내용이 제한되어 있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인권존중 정도를 보다 세부적으로 유형화하기에 부족하였다.

이와 같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폭력피해 경험과 자기인권평가의 잠재유형을 분류하여 폭력피해와 인권존중의 양상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잠재 유형의 예측변인과 차별가해 및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청소년들의 인권침해 및 존중경험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하였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 교육부 (2019). 보도자료: 2018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https://www.edujikim.com/customercenter/board/default/view_b.asp?intBbsSeq=9&Page=1&intArticleSeq=107775에서 2019년 10월 10일 인출.
- 구정화 (2016).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VI-심화분석보고서: 학교 인권 관련 환경이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선아 (2007). 학교요인과 개인적 특성이 남녀 중학생들의 폭력경험인 때리기와 맞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24, 9-33.
- 김승경, 최정원, 강지명, 선애리 (2016). 청소년 차별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126652>에서 2019년 10. 01일 인출.
- 김영미 (2016). 청소년의 폭력피해경험과 인권의식: 우울과 자기인권평가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12), 267-280.
- 김영지, 유설희, 이민희, 김진호 (2016).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VI : 총괄 보고서(연구보고, 16-R1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영지, 김희진, 이민희, 김진호 (2017).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8(연구보고, 17-R15).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자영(2012). 청소년 인권의식의 유형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재엽, 최윤희, 장대연 (2019). 청소년의 온라인 오프라인 중학교폭력피해 경

- 협이 자살 행동에 미치는 영향: 부모-자녀 간 긍정적 의사소통(TSL)의 조절효과 검증. **학교사회복지**, 45, 107-133.
- 김재엽, 황성결 (2017). 여자 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경험과 자살생각의 관계: 부모-자녀 간 TSL 의사소통의 조절효과. **한국사회복지학**, 69(4), 75-97.
- 김재엽, 이현, 장건호 (2016a). 청소년의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피해 경험이 학교 폭력가해에 미치는 영향과 교사지지의 조절효과: 중복피해집단을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36, 233-255.
- 김재엽, 김준범, 장용언, 한기주 (2016b). 가출청소년의 부모로부터의 학대와 학교폭력의 중복피해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7(2), 159-186.
- 김재엽, 송아영, 한샘 (2010). 청소년 자녀의 가정폭력목격경험과 자녀학대피해경험 중복피해에 따른 우울 및 폭력비행 행동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7(12), 1-26.
- 김준범, 최윤희 (2018). 초기 청소년기 다중폭력피해자의 자살시도에 관한 연구: 심리적 불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25(1), 121-149.
- 김진석 (2017).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7 심화분석보고서: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관련 정보접근성과 인권 의식.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현숙 (2013). 지속된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청소년의 신체발달, 사회정서발달, 인지발달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5(2), 121-143.
- 김희진 (2017). 청소년의 폭력피해경험이 차별행위에 미치는 영향과 우울의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9(3), 187-209.
- 도기봉, 장승옥 (2014). 청소년이 지각하는 교사의 체벌행동이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27, 197-220.
- 박현주 (2019). 온오프라인 학교폭력 피해 경험과 고민 상담자 유무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교정복지연구**, 60, 27-50.
- 배화옥, 강지영(2016). 아동 발달단계별 아동학대 특성 연구. **보건사회연구**,

36(1), 5-29.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8). 2017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유성렬(2013). 고등학생의 인권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362956> 2019. 10.01인출.

윤명숙, 조혜정 (2008). 청소년의 폭력경험유형이 우울 및 음주행위에 미치는 영향: 가정폭력, 학교폭력, 중복폭력 피해경험 중심으로.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29, 296-329.

윤혜미 (2017). 아동학대유형과 심리사회적 부적응의 관계에 대한 메타분석. 사회복지연구, 48(1), 173-206.

이명진, 봉미미 (2013). 청소년의 학습된 무기력. 교육학연구, 51(1), 77-105.

이민식, 김람희 (2013). 청소년들의 일상활동, 건강 취약성과 학교폭력피해. 한국범죄학, 7(2), 101-125.

이승현, 강지현, 이원상 (2015).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인선, 최지현 (2014). 청소년의 부모로부터의 학대와 학교폭력의 중복피해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5(3), 259-281.

이재연, 황옥경, 강현아, 서영숙, 이완정, 구은미, 정선아 (2018). 아동권리와 복지. 창지사.

정규형(2016). 청소년의 차별피해경험이 차별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인권교육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55, 31-55.

차유정, 황의갑 (2017). 차별과 학대경험이 차별가해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감정의 매개효과. 한국범죄심리연구, 13(3), 135-154.

천정웅 (2014).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IV: 청소년 인권 의식에 관한 구조 분석.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최진영, 김기현 (2019).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의 중복발생이 아동의 우울궤적에

- 미치는 영향 연구. *사회복지연구*, 50(1), 101-133.
- 최하영, 이소민 (2019).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이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 인권교육을 통한 자아존중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학교사회복지*, 45, 59-83.
- 통계개발원 (2016). *한국의 사회동향*. https://archive.nypi.re.kr/brdartcl/boardarticleList.do?brd_id=BDIDX_n6F8WnbW969b4KycAT6R66&menu_nix=ILapew1c에서 2019년 10월 10일 인출.
- 황은주, 윤선아 (2017).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여자 중학생의 학습된 무기력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13), 525-542.
- 홍기혜 (2019). 청소년에게 인지되는 차별피해가 차별가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 차별목적과 차별감수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27(1), 33-65.
- 현안나 (2016). 친인권적 부모 및 학교 환경이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및 성별차이. *학교사회복지*, 35, 187-212.
- Agnew, R. (1992). Foundation for a General Strain Theory of crime and delinquency. *Criminology*, 30, 47-87.
- Agnew, R. (2001). Building on the foundation of general strain theory: Specifying the types of strain most likely to lead to crime and delinquency.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8(4), 319-361.
- Anthony, E. K., & Robbins, D. E. (2013). A latent class analysis of resilient development among early adolescents living in public housing.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5(1), 82-90.
- Berger, L. M. (2004). Income, family structure, and child maltreatment risk. *Child and Youth Services Review*, 26, 725-748.
- Davis, J. P., Dumas, T. M., Berey, B., Merrin, G. J., Tan, K., & Madden, D. R. (2018). Poly-victimization and trajectories of binge drinking

- from adolescence to young adulthood among serious juvenile offenders. *Drug and Alcohol Dependence*, 186, 29-35.
- Finkelhor, D., Ormrod, R. K., & Turner, H. A. (2007). Poly-victimization: A neglected component in child victimization. *Child Abuse & Neglect*, 31, 7-26.
- Finkelhor, D., Ormrod, R., Turner, H., & Holt, M. (2009). Pathways to poly-victimization. *Child Maltreatment*, 14(4), 316-329.
- Ford, J. D., Elhai, J. D., Connor, D. F., & Frueh, B. C. (2010). Poly-victimization and risk of posttraumatic, depressive, and substance use disorders and involvement in delinquency in a national sample of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6, 545-552.
- Hodges, E. V. E., & Perry, D. G. (1999). Personal and interpersonal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victimization by pe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 677-685.
- Jackson-Hollis, V., Joseph, S., & Browne, K. (2017). The impact of extrafamilial victimization and poly-victimization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English young people. *Child Abuse & Neglect*, 67, 349-361.
- Maier, S. F., & Seligman, M. E. P. (1976). Learned helplessness: Theory and evidence.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05(1), 3-46.
- Mohr, A. (2006). Family variables associated with peer victimization: Does family violence enhance the probability of being victimized by peers? *Swiss Journal of Psychology*, 65, 107-116.
- Ondersma, S. J., Delaney-Black, V., Covington, C. Y., Nordstrom, B., & Sokol, R. J. (2006). The association between caregiver substance

- abuse and self-reported violence exposure among young urban children.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9, 107-118.
- Petscher, Y., Schatschneider, C., & Compton, D. L. (2013). *Applied quantitative analysis in education and the social sciences*. New York, NY: Routledge.
- Pinquart, M. (2017). Systematic review: Bullying involvement of children with and without chronic physical illness and/or physical/sensory disability-a Meta analytic comparison with healthy/nondisabled peers.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42(3), 245-259.
- Smokowski, P., & Kopasz, K. H. (2005). Bullying in school: An overview of types, effects, family characteristics, and intervention strategies. *Children & School*, 27(2), 101-110.
- Turner, H. A., Finkelhor, D., & Ormrod, R. K. (2007). Family structure variations in patterns and predictors of child victimization.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7, 282-295.
-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UNCRC) (1996). *General guidelines regarding the form and content of periodic reports to be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paragraph 1(b), of the convention (CRC/C/58)*. Geneva: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 Yampolskaya, S. Sharrock, P., Armstrong, M. I., Strozier A., & Swanke, J. (2014). Profile of children placed in out-of-home care: Association with permanency outcome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6, 195-200.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understand adolescents' experiences of violence and evaluation on their own human rights. The participants were adolescent who responded to "Korean Survey on the Rights of Children and Youth in 2019". I conducted latent class/profile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descriptive analysis, t-test, and chi-square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4 latent classes of victimization: no-victimization, victimization at home, victimization by a teacher and poly-victimization. There were also 2 latent classes of adolescents' evaluation on their own human rights: positive and negative. Second, the poly-victimization group showed the most serious level of depression and suicide ideation. The positive evaluation group showed better mental health overall. Third, girls were more likely to experience victimization at home and boys were more likely to experience victimization by a teacher. As adolescents get older, as they perceive their physical health better and as community safety increases, adolescents were less likely to belong to the class of poly-victimization. Predictors of positive evaluation of adolescent's human rights included violence by parents, being respected for human rights by parents and teachers, and community safety, grades, and economic status. Forth, experiences of poly-victimization predicted more adolescents' discriminating behavior. Adolescents' positive evaluation on their own human rights

predicted higher human rights awareness. Based on the research findings, I discussed how to prevent violence victimization and respect adolescents' human rights.

Keywords: Victimization, adolescents' human rights, latent classes, predictors, discriminating behaviors, human right awareness

2019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9-R01 청소년 '일 경험' 제도 운영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 : 대학교 실습학기제를 중심으로 / 김승경·최정원·강정한
- 19-R02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Ⅳ / 김형주·연보라·유설희
- 19-R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Ⅳ - 전년도 공개데이터 심층분석보고서 / 김형주·연보라·유설희
- 19-R02-2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Ⅳ - 기초분석보고서 / 김형주·연보라·유설희
- 19-R03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Ⅱ / 김경준·김정숙
- 19-R04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구축 방안 연구 / 강경균·성윤숙·김승보·장현진
- 19-R05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업사회공헌 사업과의 협업 추진 방안 연구 / 임지연·황세영·김도영
- 19-R06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청년정책 개선 방안 / 김지경·변금선·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 19-R07 정보기술을 활용한 위기청소년 사회서비스 확충 방안 / 김지연·이경상·노법래
- 19-R08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전략연구 / 배상률·이정민
- 19-R09 미래지향적 청소년관련 법 정비 방안 / 김영한·서정아·권일남
- 19-R10 청소년지도자 양성시스템 재구축 방안Ⅰ : 청소년 활동분야 중심으로 / 최창욱·좌동훈·남화성·박정배
- 19-R1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Ⅶ / 오해섭·문호영·염유식
- 19-R1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9 - 총괄보고서 / 김영지·김희진·이민하·김진호
- 19-R1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9 - 심화분석보고서 / 강지영
- 19-R1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9 - 기초분석보고서 / 김영지·김희진
- 19-R13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정책 추진체계 구축방안 연구Ⅰ / 최인재·이윤주·송민경·조윤정
- 19-R14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Ⅹ - 사업보고서 / 하형석·김성은·이용해

- 19-R14-1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X - 데이터분석보고서 / 김성은·김준엽
 19-R15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19 - 총괄보고서 / 양계민·장윤선·정윤미
 19-R15-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19 - 기초분석보고서 / 양계민·장윤선·정윤미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59-01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Ⅱ :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 장근영·윤철경·서고운·이동훈 (자체번호 19-R1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59-02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Ⅱ :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을 위한 중소도시 지역 질적 연구 / 조아미·임정아·김남은
 (자체번호 19-R16-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0-01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Ⅱ :
 학교 졸업예정자 / 김기현·유민상·김창환·정지운 (자체번호 19-R1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0-02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Ⅱ :
 학교 졸업예정자-해외사례조사 / 김기현·유민상(자체번호 19-R17-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1-01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Ⅰ /
 임희진·백혜정·김동식 (자체번호 19-R1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1-02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Ⅰ -
 학생 청소년의 건강불평등 실태 분석 / 김동진·정연·채수미 (자체번호 19-R18-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1-03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Ⅰ -
 기초분석보고서 / 임희진·백혜정 (자체번호 19-R18-2)

연구개발직립금

- 19-R52 청소년정책 재구조화 방안연구 / 김기현·최정원·변금선·이종원·이민정·정지희
 19-R21 청소년 참여 연구사업 운영을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역량 증진방안 연구 / 모상현
 19-R21-1 청소년 참여 연구사업 운영을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역량 증진방안 연구 :
 10대연구소 연구사업 운영보고 / 모상현·함세정

수 시 과 제

- 19-R53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연령조정 방안연구 / 이정민
- 19-R54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 김형주·이종원
- 19-R55 학교 밖 청소년 추정치 추계방안 연구 / 하형석·이종원·이정민
- 19-R56 2030 혁신리더 양성개발 및 평가 / 최정원·김현철·문호영·이윤주·박지숙·정은진
- 19-R57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역기관 연계 종합지원모델 개발 / 연보라·이윤주·김현철

수 탁 과 제

- 19-R19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성장기회격차 해소방안연구 :
통계구축방안을 중심으로 / 양계민·김지연·장윤선
- 19-R20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구축 방안 연구 :한국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지표
DB 구축 및 보고서 작성 / 유민상·이용해
- 19-R22 청소년 비즈쿨 지원사업 교육운영모형 개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강경균
- 19-R23 학교폭력 예방 또래활동 프로그램(초등학교) / 성윤숙·이혜정
- 19-R24 학교폭력 예방 또래활동 프로그램(중학교) / 성윤숙·이혜정
- 19-R25 학교폭력 예방 또래활동 프로그램(고등학교) / 성윤숙·이혜정
- 19-R26 2018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 성윤숙·김현수
- 19-R27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매뉴얼 / 성윤숙·장안서
- 19-R28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심층 프로그램 / 성윤숙·서정아·문호영·장안서
- 19-R29 2018 개정 학부모 어울림 프로그램 :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24종) / 성윤숙·김현수
- 19-R30 2015 개정교육과정을 반영한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 : 중학교 국어·
도덕·사회 및 고등학교 국어·통합사회(5종) / 성윤숙·황세영·김성은·김현수
- 19-R31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개발(중등용) 및 프로그램(5종) / 황세[영·한지형
- 19-R32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김지연·서고운·김태완
- 19-R33 2019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김영지·임지연
- 19-R34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윤철경·최인재·김승경·김성은
- 19-R35 고양시 청소년재단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연구 / 김영한
- 19-R36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분석 연구 - 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심의자료 및 권고사항
(국문) / 김영지·이윤주·유설희

- 19-R36-1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분석 연구 - 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심의자료 및 권고사항 (영문) / 김영지·이윤주·유설희
- 19-R37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개선방안연구 / 양계민·장윤선
- 19-R38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 계획수립 연구용역 / 최창욱·좌동훈·문호영·남화성
- 19-R38-1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 계획 / 최창욱·좌동훈·문호영·남화성
- 19-R39 소년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실태분석 및 제고방안 / 김지연·정소연·김혁·이경상
- 19-R4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사전 연구 / 김지경·김균희
- 19-R41 청소년 보호법 체계 개선 방안 연구 / 김지경·장근영·고은아
- 19-R42 2019년 학교 시민교육 정책 네트워크 운영 / 배상률·장근영·이정민
- 19-R43 천안시 청소년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 / 최창욱·좌동훈·문호영·남화성·노자은
- 19-R43-1 천안시 청소년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 요약보고서 - 천안시 청소년재단 기본구상 및 중장기계획 - / 최창욱·좌동훈·문호영·남화성·노자은
- 19-R44 중국 청소년의 한류 인식 및 수용 실태 연구 / 배상률·문수정·장수
- 19-R45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9 / 김희진·임희진·하형석·정윤미
- 19-R46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사업 평가지표 개발 연구 / 김지연·백혜정·류정희·이상정
- 19-R47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 방안 연구 / 강경균
- 19-R48 2019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연구 / 서정아·조아미
- 19-R49 지역사회 기반 직업계고 운영 활성화 방안 / 강경균
- 19-R50 고등교육 고비용부담 및 양극화 현상 진단과 대안 / 김기현·김형주
- 19-R51 청년정책 체계성 강화 연구 / 변금선·김기현·하형석·이용해
- 19-R58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개발(초등용) 및 프로그램(2종) / 황세영·김성은·김현수
- 19-R59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실태조사 연구 / 오해섭·박지영·이지혜·임하린
- 19-R60 홈스쿨링 도입 방안 연구 / 이종태·하태욱·차상진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9-S01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시범적용 결과 발표회 및 활용방안 워크숍(1.11)
- 19-S02 2019 학교폭력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워크숍(1.24)
- 19-S03 학교폭력예방교육 운영학교 우수사례집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1.31)
- 19-S04 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1차-초등학교)(2.12~13)
- 19-S05 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1차-중학교)(2.14~15)
- 19-S06 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1차-고등학교)(2.19~20)

- 19-S07 2019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실(꿈지락) 프로그램 워크숍 자료집(4.15~16)
- 19-S08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2.22)
- 19-S09 제13회 청소년정책포럼(3.6)
- 19-S10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2차) 초등학교(3.27~4.10)
- 19-S11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2차) 중학교(3.29~4.17)
- 19-S12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2차) 고등학교(3.29~4.17)
- 19-S13 제14회 청소년정책포럼(4.29)
- 19-S14 제15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토크콘서트 자료집(5.24)
- 19-S15 2019년 대안학교(각종학교 및 특성화 중·고교) 관리자 협의회(6.4)
- 19-S16 2019년 대안학교(각종학교 및 특성화 중·고교) 담당자 연수(6.5)
- 19-S17 제20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6.10)
- 19-S18 제15회 청소년정책포럼(6.14)
- 19-S1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개원 3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6.18)
- 19-S20 제16회 청소년정책포럼(7.26)
- 19-S21 제17회 청소년정책포럼(8.28)
- 19-S22 제21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8.14)
- 19-S23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8.13~14)
- 19-S24 2019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관리자 연수(8.22)
- 19-S25 2019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담당자 연수(8.23)
- 19-S26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시도교육청 협의체 워크숍(8.26)
- 19-S27 제18회 청소년정책포럼:청소년지도사 양성체계 및 처우개선 방안 제1차 재구조화 포럼(9.19)
- 19-S28 제22회 청소년정책포럼: 2019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 포럼(10.25)
- 19-S29 제19회 청소년정책포럼: 미래지향적 청소년관련 법 정비 방안(9.26)
- 19-S30 제20회 청소년정책포럼(9.27)
- 19-S31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발전방안 포럼(9.26)
- 19-S32 제22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잠재프로파일 분석의 이론과 실제)(9.27)
- 19-S33 제23회 청소년정책포럼: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성장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지역자원 연계방안(11.7)
- 19-S34 제24회 청소년정책포럼:청소년 주도적 참여기반 확대 및 활성화 방안(11.19)
- 19-S35 제23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 협력 추진 방안 (11.12)
- 19-S36 제8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11.15)
- 19-S37 제21회 청소년정책포럼:2019 전국청소년 지표조사 결과 발표 및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10.1)

- 19-S38 제25회 청소년정책포럼: 청소년을 위한 NPO-기업 사회공헌사업의 협업추진 방안(12.6)
- 19-S39 제24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정책평가를 위한 이중차분법의 활용: 이중차분법의 이해와 한국아동청소년패널 데이터 이용 사례(12.2)
- 19-S40 제26회 청소년정책포럼: 한국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현황 및 전망(12.12)
- 19-S41 제27회 청소년정책포럼: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발전방안 포럼- 해외사례를 통한 국내 학교폭력 예방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12.12)
- 19-S42 고교학점제와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 자원의 연계방안 모색을 위한 포럼(12.16)
- 19-S43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교육청 공동 세미나: 서울 학교 밖 청소년 실태와 정책 진단, 그리고 미래(10.8)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30권 제1호(통권 제92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0권 제2호(통권 제93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0권 제3호(통권 제94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0권 제4호(통권 제95호)

기타 발간물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3호 :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4호 : 제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청소년활동정책 전략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5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 I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6호 : 위기청소년 교육적 선도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7호 : 청소년을 위한 NPO-기업 사회공헌사업(CSR) 간 협업추진을 위한 '협업지침'과 '중추지원조직 기능·추진사항' 개발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8호 : 미래지향적 「청소년복지 지원법」 정비 방안
- NYPI Bluenote 통계 46호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V
- NYPI Bluenote 통계 47호 :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 : 청년 니트(NEET)
- NYPI Bluenote 통계 48호 : 부모 특성과 아동·청소년 발달의 관계

연구보고 19-R1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9 심화분석보고서
: 청소년의 폭력피해 및 인권존중 경험 유형 및 특성 연구

인 쇄 2019년 12월 23일

발 행 2019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송 병 국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계문사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241-4 94330

979-11-5654-238-4 (세트)



연구보고 19-R1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9 심화분석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www.nypi.re.kr

